

교과서연구

제 56 호

2009. 4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전찬구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김병규, 금융한, 김정호,
윤광원, 홍후조, 권영민
- 편집협력위원(시·도 교육청)
김광화(서울), 전미순(부산),
권충현(대구), 최은아(인천),
권도연(광주), 최재천(대전),
이종문(울산), 김국희(경기),
고경식(강원), 정진구(충북),
이희원(충남), 홍진석(전북),
박광춘(전남), 이진관(경북),
김영범(경남), 양영선(제주)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6-9
번지 한국교과서연구재단빌딩

- 홈페이지: www.ktrf.re.kr
- 전화: (02) 2651-1950
- 팩스: (02) 2651-1954
- E-mail: editor@ktrf.re.kr

- * 표지 글씨 : 신두영
- * 편집 디자인 : (주)미래엔컬처그룹
국정교과서팀

● 권 두 언

2 _____ 교육 내용의 구성과 교사의 자율성 / 김성열

● 특별 기획: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

- 4 _____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의 방향 / 박병선
- 10 _____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과서의 준거 / 김왕근
- 15 _____ 수준별 수업과 교과서 개발-반성 및 전망 / 김재춘
- 20 _____ 디지털 교과서의 이론적 기저 / 손병길
- 26 _____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서 본 우리 교과서의 특징 / 이용숙
- 35 _____ 교과서 정책의 변화와 전망 / 민병관

● 현장 교육

40 _____ GJES 교실 수업 창조 전략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사의 역할 탐색 / 박보영

● 논 단

- 44 _____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교의 역할 논의 / 김종식
- 48 _____ 교육 기관 평가의 과제와 개선 방향 / 구자역

● 연 재

51 _____ 북한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 / 조정아

● 교과서 편집자의 변

- 55 _____ 긴 시간 속에서 얻어 낸 값진 열매 / 황은주
- 59 _____ 디지털 교과서, 그 신선한 경험 / 신동희

● 나의 제언

- 63 _____ 교육과정 중심으로 편수 행정을 되살려야 한다 / 이경환
- 66 _____ 교육과정 개정 체제와 학교 교육 / 박 줄

● 탐 방

70 _____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27)-양태회 / (주)비유와상징 CVP

● 자 료

- 74 _____ 초 중등 학교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수정 고시
- 81 _____ 2009년도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 82 _____ • 제7회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 83 _____ • 연구재단 소식
- 84 _____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85 _____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 86 _____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육 내용의 구성과 교사의 자율성



글 |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과서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전환 또는 재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교사들이 학생들의 필요 흥미를 고려하면서 그들의 지적 수준에 맞게 재해석하여 교과서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 내용의 구성에서 교사의 자율성이란 교과서의 형태로 제시된 교과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교사가 교육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교사의 역할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칠 권리와 논쟁점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관점을 내용을 권리와 관련해서 정당화된다. 이 권리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무리 정통성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진리에 가까워진다는 논리에 의하여 옹호된다. 만약에 정통적인 견해가 옳다면, 그것은 대립되는 여러 가지 견해에 의하여 도전을 받음으로 해서 더욱더 옳게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교육 내용 구성의 자율성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자율성의 허용은 교사들의 전문성을 근거로 한다. 어느 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육 요구 조정 전문성’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 교육 전문성’이다. 우선, ‘교육 요구 조정 전문성’이란 교사가 ‘교육 요구 조정 전문가’로서 교사 자신, 학생, 학부모, 학교 및 사회 일반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조건을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조정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교사, 학부모, 학생, 사회 일반 및 교육과정상의 목표 달성에 상이(相異)한 가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이 유리해지도록 하는 쪽으로 교과 내용이 취급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요구를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표출한다. 예컨대, 진화론과 창조설에 관한 선호(選好)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다를 수 있다. 학부모는 교육과정상에서 다루지 않게 되어 있는 창조설을 생물 시간에 다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업의 과정에 표출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요구들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조정해 내는 일이 바로 교사의 교육 요구 조정 역할이다. 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교육 내용 재구성의 과정에서 소재 선택의 자율성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의 교과 교육 전문성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특정 교과와 학문 영역의 내용상의 전문성이다. 즉, 교사는 특정 교과와 지식, 탐구 능력, 판단력 등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과

의 가치를 사정(査定)하고 상이한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과 내용을 그들의 경험 수준에 맞추어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사는 이러한 학문 내용상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지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방법상의 전문성이다. 지식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가르치는 방법의 문제가 등장한다. 교과 내용상의 전문성이 '잘 가르친다'는 것을 충분하게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자기가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 그와 관련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동원할 줄 알아야 한다. 가르치는 방법상의 전문성이란 이렇게 교사가 학생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구사(驅使)하여 자기가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사는 이러한 가르치는 방법상의 전문성에 근거해서 기술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 교과 교육 전문가로서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수업 시간에 교사의 교과 교육 전문성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때 보다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 즉, 교과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형태로 교사에게 제시되는 교과내용이 교조적(敎條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교과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스스로 교과 목표의 체계 내에서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답습(踏襲)하지 않고, 학습자들의 사고와 판단을 자극하고 문제 해결의 생생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교육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교사가 이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자율이 주어진 교과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否定)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은 일종의 집합적 선호(collective preferences)를 결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능한 설명자이기 때문이다. 교사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은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다른 관점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학생들은 교사가 말한 것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역사 발전에 관한 계급론적 설명을 했을 경우에, 그 교사의 해석을 논박(論駁)하고 나설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 구성 과정에서 교사가 가지는 자유의 의미는 조심성 있고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교과서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교육 요구 조정 전문가로서 주어진 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다룸에 있어서 소재 선택의 자율성을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교사는 교과 교육 전문가로서 교과서 내용의 기본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적절한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할 수 있는 자율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교사는 자신이 부여받은 이러한 자율성을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미숙(未熟)한 아동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교사의 자율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제한적인 것이다. ㉠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의 방향¹⁾

글 | 박병선 (한국교육학회장)



I.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주요 문제

교육과정을 학습 교재로 구체화한 자료로 교과서를 중시하는 한, 교과서는 학교 수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교육과정이 애매하게 구성된 경우, 교사나 학생들은 교과서에 의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교과서를 중시해 온 나라로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해 왔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편은 교과서 새로운 편찬으로 연결되고, 교과서 출판사들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희비가 엇갈린다. 최근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발행권을 따기 위해서 출판사들 간 과열 경쟁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중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합격률은 출판사들의 사운을 좌우한다.

우리의 교과서는 내용 압축 정선, 저가 정책, 일회성 소모품, 국가 심사제로 개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별 여러 종이, 개발되지만 그 체제나 내용은 비슷하다. 교과서 개발의 개선의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짚어 본다.

(가) 교과서 편찬 방식의 문제

우리 교과서 편찬 방식은 교과목 내용 압축 정선 방식이다. 교과서 서술이나 각종 학습 정보는 표본적인 입장을 채택하고, 교과서의 부피가 얇다. 학생들이 교과목의 핵심을 알도록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 값이 저렴하고, 일회용 소모품으로 발행된다. 이러한 편찬 방식에 우리는 익숙해 있다. 사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일본 교과서 편찬 방식을 답습한 것이고, 한자 문화를 공유한 한 중 일 동아시아 문화적 전통에 비추어서도 친숙한 면이 있다. 즉 교과서는 간결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해석이나 해설

서를 붙이는 것이다.

이와 다른 편찬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유명 대형 서점에 가면, 외국 교과서 코너가 있고, 그 코너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코너에 진열된 구미의 교과서들은 우리의 교과서와 다르다. 내용이 자세하고 부피가 두껍다. 두꺼운 표지에 제본도 매우 견고하며, 무겁다. 앞뒤 표지 속에는 연차별로 사용한 학생 이름을 적어놓게 되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심사숙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전제한 학습 효과 면, 경제성 면에서 살펴볼 만한 일이다. 학습 효과 면에서 볼 때, 내용 압축 정선식 편찬은 학생들에게 학습의 요점을 파악하도록 돕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 내용을 잘 해설해 주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은 장점이면서 단점이 된다. 압축된 내용을 해설하는 부교재 필요를 발생시킨다. 다른 말로 교과서만으로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압축 정선식 교과서는 그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교과서 양이 작기 때문이다. 만약, 학생들이 그러한 교과서만으로 학습하는 데 충분하다면, 압축 정선식 교과서는 경제적인 교과서이다. 그러나 교과서 해설한 부교재나 참고서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이러한 부교재를 사서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 경제성 면에서 다른 이야기가 된다.²⁾ 교과서 정가는 싸게 보일지 모르지만, 학생(또는 학부모) 당사자가 교과서 해설 참고서를 구입한다면, 이러한 비용을 교과서 구입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습 교재 시장에는 교과서 이외에 부교재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교재의 이중 구조가 있다는 현실을 부인하지는 누구도 부인 않을 것이

다. 내용 압축 정선식 편찬 방식은 학습 효과 면에서, 경제성 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쉽게 잘 학습하도록 돕는 방식은 아닌 것이다. 교과서가 저렴하다고 하는 경제적 혜택을 학부모들이 입는 것도 아니다.

(나) 교과서 발행권의 문제

다음으로는 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하는 주체가 궁극적으로 누구여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 교과서는 국가의 개입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국정이든 검정이든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다. 즉, 국정이든 검정이든 국가의 기본 계획에 따라 사전 심의 과정을 거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엄격히 말하면, 국가의 사전 검열제이다. 차이는 국정 단행본이나, 여러 종의 검정본이나의 차이뿐이다.

이러한 방식과는 달리, 국가 권력이 교과서 발행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교과서 발행을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고, 절충적으로는 발행 후 허가제와 같은 방식을 쓴다. 구미의 국가들이 대체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중앙 집권적 교육 정책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교과서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전통을 세운 지 100년 넘었다. 이런 경우, 누구나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가 교과서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다.

물론, 교사가 임의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정에 의해서 내용과 수준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소비자의 선택 여하가 교과서의 위세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지역별 또는 학교별로 교사, 학부모,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과서 선정 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선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교과서 전시회, 교과서 선정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행된 교과서는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된다. 학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방 정부가 선정한 교과서 목록 가운데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체 재원으로 원하는 고가의 교과서를 채택할 수도 있다. 교과서 발행이 시장 경제 법칙을 기조로 자유롭게 발행된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 교과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질 좋은 교과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교과서 시장은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소비자들에 의해서 교과서 출판사들이 난립하기보다 우수 출판사 몇 개로 자연스럽게 살아 남고 있는 사례에서 충분히 관찰된다. 시장에서 살아 남는 교과서들은 각각 편찬 방식이나 내용 조직에 있어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교과서 발행권을 국가 주도에 두느냐 아니면 민간 주도에 두느냐의 차이는 교과서 발행을 얼마나 규제하느냐에 달린 차이이다. 교과서도 상품이다. 만약, 시장 경제 질서에 합당하도록 한다면, 규제와 관여는 적을수록 좋다. 그러면 시장 경제 질서에 따라가도록 하는 교과서 정책이 학습 효과와 경제성 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만하다. 물론, 한정된 사례이지만, 외국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서점 코너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통찰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교과서 활용 경제성 문제

교과서 출판사의 이윤 창출 동기와 소비자의 저비용의 상반된 요구를 어떻게 절충하느냐이다. 여기서 소비자는 국가와 학부모이다. 질 좋은 교과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발전될 수 있다. 국정 교과서는 단일본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그만큼 비용 절감의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 대신 소비자에게는 원하는 교과서 상품 선택의 기회가 없다. 검인정 또는 자유 발행제의 경우는 소비자가 여러 교과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대신 단가의 상승을 각오해야 한다. 단일본 대량 생산 저가 교과서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품종 고가 교과서를 채택할 것인가를 교과서 정책 당국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저가 교과서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고가 교과서는 그렇지 못하다. 구미 나라들은 교과서 대여제를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교과서를 정부가 학교별로 사서 주고, 학생들이 몇 년씩 돌려가며 보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과서를 소유하지 않고 대여해서 보는 제도를 허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큰 작용을 한다.

한편, 방대한 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손 안의 단말기 컴퓨터로 휴대 가능한 유비쿼터스 정보화

시대에 종이 인쇄 교과서가 계속 유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 압축 정선식이든,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든 정보의 용량이 문제되지 않는다. 고전에서부터 새로운 저술은 물론 동영상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온라인 양방 통신으로 즉석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전자 학습(e-learning)에서 유비쿼터스 학습(u-learning) 시대로 정보 환경은 치닫고 있다.

사실 학원들과 부교재 시장은 이러한 정보 환경의 변화를 잘 빠르게 그들의 학습 교재 운영 전략에 채택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교과서 발행 제도로서는 이러한 정보 환경의 변화를 순발력 있게 교과서 변화에 수용하는 데 있어 지체를 가져온다.

(라) 디지털 시대 대비

교과서가 인쇄 매체로 개발되어 온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온라인으로 학습자와 양방향 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의 출현이 오래지 않아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머지않아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고 간단한 이동식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과서 내용을 검색하고 컴퓨터 교과서로 공부하는 날이 올 것이 전망된다. 물론, 인쇄 자료로서 교과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학습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 양식으로 확립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인간은 그러한 생활 방식이 거추장스럽다고 여길 때, 종이 교과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II. 바람직한 방향

(가) 교과목별 학습 성취 기준의 상세화

교과목의 학습 목표와 기본 학습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수준별로 어떤 위계를 가지는 것인지는 교육과정에 상세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 상세한 정도는 교사가 교육과정만을 가지고도 학년, 학기별 수업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업 정보가 안내되어야 한다. 특별히 학년, 학기별 학생들 입장에서 학력 신장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 성취 기

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일정한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습득하여야 할 기본 정보, 개념, 절차, 기능, 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적시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체험하여야 할 학습 경험이 무엇인지도 밝혀 놓아야 한다.

교과목별 교육과정은 이러한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의 내용은 매우 개괄적이다. 상세한 내용은 교과서에 넘기는 양상이 된다. 이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주객을 전도시키는 관행으로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이 확립되려면, 교육과정 자체를 상세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교과서 발행의 자율화와 공동체적 교과서 선택 과정 도입

교과목별 교육과정이 상세하게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초·중등 모든 교과서는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고,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자유 발행제의 기본 취지는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사전 인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교재 출판사들이 학교 교과서 시장을 내다보고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시·군 교육청(초·중학교급), 시·도 교육청(고등학교급), 또는 개별 학교(사립 학교) 단위의 교육 자치 관할 내에서 사용해도 좋은 교과서를 심의 공고하면, 공립 학교는 개별 학교 단위에서 그 공고(公告) 범주에 속한 교과서에서 학교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과서를 선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 의사 결정의 절차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당사자로서, 학부모는 대금을 지불하는 교과서 구매자일 뿐만 아니라 자녀 학습에 대한 직접 이해 당사자로서 교과서를 선택하는 과정에 당연히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공동체적 의사 결정 과정이란 이처럼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학교 당국,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사용자들이 출판사들의 교재를 일정 기간 평가하여 그들에게 가장 좋다고 판정된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서 발행을 자율화하는 데에는 법적 정비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늦어도 2015년을 최종 목표 연도로

내용 압축 정선식의 교과서 집필 방식을
전면적으로 탈피하여 별도의 부교재가 필요 없을 만큼
학습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는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하고, 그때까지는 현행 국 검 인정 교과서 가운데 가능한 교과목부터 자율 발행으로 이행하는 점진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정 교과서의 검정화 조치이다. 초등학교 전과목과 중 고등학교의 기본 과목에 해당하는 국정 교과서는 검 인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음악, 미술, 체육, 문학과 같이 영감과 상상력을 키우는 교과목은 곧바로 자율 발행제로 이행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교과목의 내용 구조가 국제적으로 규범화되어 있는 수학, 과학, 영어와 같은 교과서는 다른 교과목에 비해 자율 발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교과목 한 종류 단행본 교과서 발행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재 재구성 가능성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오는 후진적 교과서 정책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교과목별 3종 이상은 저자와 출판사가 다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정 교과서는 발행 부수가 적어 시장성이 없는 전문 교과서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 교과서 정보 풍부화와 일회 소모성 연습용 교재 분리

음성적 부교재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현재와 같은 내용 압축 정선식의 교과서 집필 방식을 전면적으로 탈피하여 별도의 부교재가 필요 없을 만큼 학습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는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과서 양이 늘어나고, 교과서 값이 크게 오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교과서 값 인상이 국가 예산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돌파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3~6년 내구재(耐久財)로서의 교과서 정본과 일회 소비용 연습장을 분리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정본은 교과목의 기본 개념과 해설 등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자료로서 풍부한 정보를 싣고 두꺼운 표지에 제본을 튼튼히 하여 3~6년 정도의 내구 연한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내구재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 교과서는 학생 개인 구매용이 아닌 학교 소유, 학생 대여용 교과서로 개발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이 교과서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학교에 반납한다. 일회용 연습장은 교과서 내용에 따라 학습의 과정에서 필요한 실험, 관찰, 문제 풀이, 반복 연습 등에 활용하기 위한 소모성 자료이다. 이러한 소모성 자료는 고급 지질이나 고급 인쇄를 할 필요는 없다. 일반 공책보다 조금 비싼 정도의 값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본 교과서 값의 인상은 불가피하나, 책의 치장이나 고급화로 인한 값의 인상은 불필요하다. 의무 교육 대상 교과서는 정부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학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적정한 교과서 값의 한도를 탐색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내구재 정본 교과서 값 비용은 초기 일시 지불이 어려울 수 있는 정황을 감안하여 국가 보증 은행 대출로 지불하고, 매년 국가 예산(의무 교육 대상 교과서)이나 학부모로부터 감가상각(減價償却)비용과 대여료 징수로 그 대출을 분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본 교과서는 반드시 교과서 용도로 집필된 책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고전, 문학 작품, 교양 학술서 등 이미 그 가치가 사회, 문

무엇보다
교과서 발행 자율화로 가기 위한
섬세한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정책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화적으로 공인된 저술들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과서, 또는 보조 교과서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교과서 자원이 다양해지고, 문화유산의 원본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이 촉진될 수 있다.

(라) 디지털 교과서 조기 도입

인터넷 강국 한국의 위상은 디지털 교과서 세계 선도적 역할로 이어져야 한다. 교과서 출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망을 통한 온라인상의 교과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고, 사용자 불편 사항을 인터넷 통신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교과서를 지원하는 각종 멀티미디어 학습 정보, 학생 학력 확인 및 관리 시스템, 교과서 내용 추가 또는 수정 보완 자료가 인터넷 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 사용자(학생)의 휴대용 단말기에 교과서가 온-오프라인(on-off) 탑재될 수 있고, 학습의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상에 궁금한 사항은 직접 회사에 질의할 수 있고, 즉답이 제공되는 교과서 웹마스터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나 교육 자치 기관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 학습을 인터넷으로 지원하는 학습 자원 지원 센터 기능을 확충해 가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동영상, 사운드, 실시간 뉴스 등을 생생하게 제공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학생과 교사 간, 학생과 출판사 간 양방향 상호 작용이 가능해진다. 학생의 학습 진도가 파악되고, 교사에게는 학생 개인별로 성취한 수준을 전체 지도 학생들의 통계로서도 금방 볼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책으로 편찬된 교과서를 디지털화하거나 인터넷 망으로 하

이퍼 교과서(hyper text)를 가능하게 하는 출판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과서 평가 기준을 정부는 교과서 사용자들에게 권장해야 할 것이다.

(마) 시장 원리에 의한 교육계와 교육 산업계의
선순환 관계 구축

교과서 출판사로 집약되는 교육 산업계가 학교 교육 본령 회복에 이바지하면서 경제적 이윤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교과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교과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교육과정을 치밀하게 잘 마련해 놓는 것이 관건이다. 교과목별 학습 성취 기준을 분명히 세워 놓고, 성취에 필요한 필수 최소의 기본 개념, 가치관, 기능, 체험 대상 등을 학생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 정교하게 위계화하는 작업을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과정 실현을 도울 교과서 편찬 지침을 마련하되, 그것은 교과목별 교과서(정보과 연습장) 가격의 한도, 교과목별 내구 연한(耐久年限) 기준과 같은 기본 요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 출판업계는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되, 이윤은 교과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출판사 간 과당 경쟁이 학교 현장에 여러 잡음을 일으켰던 과거의 전력이 있으나, 교과서 채택 과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면 부조리한 폐단을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

의무 교육 대상 교과서는 교육 자치 단위인 시군 교육청별로 집단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과서 전시회를 열고, 지역 내 학교별 운영 위원회 위원 대표, 교사 대표가 출원된

교과서들을 평가 척도에 따라 평가하는 공동체적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시·군·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개별 학교 위주로 선택하는 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교사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 보다 학교 운영 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공정한 과정이 된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 시·도 교육청 단위 또는 개별학교 단위로 채택하도록 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해당 교육 자치 기구에서 결정할 사안이어야 할 것이다.

(바) 교과서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및 실험 교과서 연구

무엇보다 교과서 발행 자율화로 가기 위한 섬세한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정책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여제 교과서로 가기 위한 적정 교과서 단가 책정 방법, 일회 소모성 연습장 가격의 산출, 대여제 교과서의 적정한 내구 연한 설정, 대여제 교과서를 자비(自費) 소유하려는 사용자의 예상 수와 그에 대한 대책, 대여제 교과서 도입 이후의 교과서 부교재 시장 축소 여부 예측 등 여러 중요한 연구 과제가 있다.

교과서 체제 변화를 시도하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서가 필요 없는 신한국형의 교과서 정본 개발 모형, 연습장(workbook)의 교과목별 모형, 디지털 교과서 모형, 교과서 회사의 사용자에게 대한 온라인 지원 체계, 온라인 인터넷 교과서의 안정성,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교과서 탑재 실현 연구 등 미래 지향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Ⅲ. 미래형 교과서를 향하여

최근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발행권 배분사를 정함에 있어 정책에 당국이 세심하게 대처하지 못해 교과서 정책 불신을 사고, 출판사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겼었다. 교과서 대량 출판 시설 확보가 의심스러운 회사가 저가 입찰로 다수 교과서 출판권을 확보해, 교과별 전문 출판사를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물건너 갔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경쟁을 통하여 저렴하면서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조달청 경쟁 입찰 방식으

로 선정한 결과는 참담하다. 교과서 다수 출판권을 확보한 회사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교과서 출판계의 의견이 들린다. 이렇게 된 데에는 조달청 입찰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 주무 부처에서 마련해 준 기준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즉, 기술적 기준 80%, 가격 경쟁 20%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 변수가 절대적 영향을 갖도록 한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업무 담당관들의 생각이 교과서는 가격보다 질이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모자랐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교과서는 저가 정책을 써 왔다. 교과서 저가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이다. 안정성 있게 질 좋은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는 교육 산업계 기반이 형성되도록 돕는 것도 교과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이다.

향후 국정 교과서는 모두 검정이나 자율 발행으로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엄정한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교과서 출판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교과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한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개발 방향이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연**

- 1) 이 글의 내용은 몇 년 전 발표한 것을 재구성한 것이다.
- 2) 한국교육개발원(공은배 외, 2001) 교육비 조사 연구에 의하면 2001년도 기준 학생 1인당 부교재 구입비는 초등학교 184,256원, 중학교 94,650원, 고등학교(일반계) 121,781원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과서의 준거

글 | 김왕근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정의함에 있어, 창의적 사고 자체에 내포된 사고의 속성을 포섭하여 정의하는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고급 사고력의 일종으로 알려진 비판적 사고나 메타 인지, 의사 결정력 등과 구별되는 배타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리프만(Lipman, 1991)이 말하듯이, “창의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와 다른 요소로 구성된 사고가 아니라, 동일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다만 그 구성 방식에 있어 차이점을 지닌다.”라고 하여 창의적 사고에 고급 사고력의 요소가 공유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토런스(Torrence, 1974)나 데이비스와 림(Davis & Rimm, 1985)이 창의적 사고의 속성 또는 요소를 제시하지 않고 대신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보이는 사고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듯 창의적 사고가 다른 사고와 구별되는 배타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창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의 장에서 발현되는 창의적 사고는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의적 사고는 교사 또는 교과서에 의해 선행적으로 규정된 학습 목표와 내용,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향해도를 잃어버린 향해사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 탐험적인 향해를 하듯이, 탐험적으로 학습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발현된다. 탐험의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듯이, 스스로를 놀람과 곤란의 상태로 이끄는 과정이 곧 창의적 학습 과정이 된다. 이에 반해 학습의 도달점이 선행적으로 주어지

는 형식화된 학교 교육은 아무리 선언적으로 창의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어진 길을 따라 향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의의 과정을 배반하게 된다.

리프만(Lipman, 1991)에 의하면, 창의성은 의미의 해석성 내지는 주관성으로 나타난다. 즉, 선행적으로 주어진 규정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상황에 따라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 학습 내지는 창의적 사고는 조작적으로 학습(manipulative learning)하는 동시에 상황 지향적으로 학습(context-driven learning)하는 것으로서, 학습 대상의 맥락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습자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논리와 기준을 일방으로 요구하는 전통적인 텍스트는 창의적 학습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어진 목표와 내용에 따라 선행적으로 계획된 절차와 방법을 동원하기를 요구하는 텍스트에 의해서는 해석적이고 조작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지평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창의적 사고의 전제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의 성격을 중심으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과서의 준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성격

(가) 일반적 성격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주어

진 형식 논리를 따라 객관화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문제 의식을 갖고) 학습의 과정과 절차를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는 과정을 중시한다. 즉, 일체의 삶의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 주도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의 현재적인 개념 맥락에 불일치와 역기능이 발생하고, 이를 인식 주체가 감지해야 한다는 인식 주체와 관련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학습은 교사 또는 텍스트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이나 논리를 따르는 학습으로부터 탈피하여,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를 스스로 수행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텍스트를 요청한다.

학문의 논리에 따라 지식의 체계를 습득시켜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교과서의 경우, '지식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향하는 교과서의 경우 '지식은 질문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전자에 있어 지식은 학습자에게 던져진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문의 논리를 추적하여 도달하게 되는 종착점인 동시에, 학습의 결과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답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에, 후자에 있어 지식은 학습자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 또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세계에서 학습자는 본질적으로 이유 동기에 근거하여 학습 목표와 내용, 형식, 속도, 평가 등을 스스로 주도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일종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이 학습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대하는 낯설음에 당황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왜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동기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나) 구체적 성격

(1) 표출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은 교과 내용을 듣고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조작하는 것을 중시한다. 마치 갑판 위에서 바다로 밀려진 사람이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행위를 직접 표출함

으로써 수영을 하듯이, 자기 주도적 학습은 던져진 있는 그대로의 삶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으로서의 학습으로 나타난다. 즉, 갑판 위에서 구경하고, 이해하며, 안타까워하며, 탄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경험당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제어하고 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의 개념적 의미를 전제로 할 때, 일체의 학습 과정은 학습자의 수행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학습자는 수행 과제로서 주어진 커다란 그림(Gestalt, Big picture)과의 관련 속에서 자신의 개별적인 학습 행위(표출 행위)의 의미를 자신의 인식 네트워크 속으로 통합시킨다. 따라서, 표출 학습을 위한 교과서는 정면화된 추상적 지식 체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 사건, 주제, 문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그래서 덜 구조화되고 문제가 적재되어 학습자 스스로 표출하게 하는 학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적으로 규정된 의도와 계획에 따라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주어진 환경은 의미 있는 학습을 유발하지 못한다. 학습은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삶의 그물 위에 던져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2) 정서 학습

앞에서 의미 있는 학습은 학습자의 인지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는 인지적 갈등과 혼란이 정서적인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유 동기로 발전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서에서 비롯되는 학습(feeling learning)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체험을 통하여 학습자는 의미의 상실과 변환, 재생 등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심층적이고 개인적인(주관적인)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블룸(Bloom)의 이원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경우에 인지적인 학습과 정의적인 학습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서 다룬다. 그러나 양자는 사실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실제 학습 상황에서 양자는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즉,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은 별도로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과정을 통해 학습된

다. 예컨대, 정직함에 대하여 학습하는 경우를 보면, 정직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다른 가치(예를 들면, 우정)가 갈등하는 사례를 대하면서 학습자는 인지적인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에서 출발하여 정직이 요구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논리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갈등과 혼란은 인지적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이며, 이유와 근거를 탐색하는 과정 또한 인지적이면서 정서적이다. 요컨대, 학습자는 자신의 느낌과 가치를 중립화해서 학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정서에 적극적으로 의존해서 학습하게 된다.

(다) 학습의 학습

학습자의 목적과 학습의 목적은 다르다. 학습자의 목적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얻는 것이나, 학습의 목적은 학습 그 자체에 있다. 물론, 학습자는 삶의 방식으로 학습을 잘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학습의 목적이 학습 그 자체에 있다는 말은 연속적이고 상승적인 순환 과정을 따라 학습이 계속됨을 이르는 말이다. 학습의 끝은 곧 삶의 끝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학습은 인간에게 생래적으로 주어진 속성의 하나로서 본인의 의지 또는 사회적인 요구와는 무관하게 삶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삶의 존재를 학습과 관련지어 이해할 때, 삶은 학습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새로움의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학습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은 새로움(또는 다른, 더 깊은 등)을 학습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초보자가 되는 것의 학습(learning to be a beginner)’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초보자가 되는 것을 학습하게 됨으로써 학습과 삶의 연속적인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예컨대, “공부하기 위해 공부한다.”든지, “질문하기 위해 질문한다.” 등과 같은 말은 학습에 들어 있는 이러한 의미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연속적이고 상승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학습 능력, 학습 태도 등)을 판단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반성적 학습(reflective learning)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습의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비교하고 변화를 인식하여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의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학습할 경우, 학습자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의미’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대기(연표)의 의미, 즉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의미의 체계(systems of meaning)’를 동시에 구성해 간다. 즉, 사건의 의미를 학습하면서 스스로의 반성 과정을 통해 의미 체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따라 선행적으로 구성된 의미의 체계는 다른 유사한 유형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경우, 그러한 상황에 의미를 반성적으로 부여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학습의 학습을 위한 준거는 자신의 판단과 사고 및 일체의 선행적인 학습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질문과 반문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적으로 따라 나오는 학습과 관련을 맺도록 하는 질문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Ⅲ.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과서의 준거

레즈닉(Resnic, 1987)이 말하는 창의적 사고를 위시한 고급 사고는, (1) 정해진 특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2) 복잡하며, (3) 상황에 적합한 미묘한 판단과 해석을 따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4)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며, (5) 자기 규제적이고 자기 수정적인 과정을 통해 스스로 혼란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력 중심의 수업을 실험하기 위해 학급 사고력 지표를 개발한 뉴만(Newmann, 1991a)은, (1) 피상적인 다수의 항목보다 소수의 항목에 대한 철저한 학습, (2) 도전적인 질문과 구조화된 과제, (3) 학습자의 독창적인 사고와 해결 방안의 유도, (4) 결론에 필요한 설명과 이유의 요구 등의 학습 자료와 관련된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레즈닉과 뉴만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학습 자료 선정과 질문 구성의 적합성에 따라 창의성 신장 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어떤 학습 자료를 선정하여
어떤 질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문제 의식과 사고를 통한
탐구 학습 여부가 좌우된다.

어떤 학습 자료를 선정하여 어떤 질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문제 의식과 사고를 통한 탐구 학습 여부가 좌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 자료로서 교과서가 지녀야 할 준거를 학습 내용의 구성 및 제시 방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이야기와 드라마가 있는 일차 자료(primary & authentic source)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지적 판단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한다. 이야기 속에는 상황과 맥락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 의미 구성, 탐구, 문제 해결 등 일련의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의 조작적 해석적 개입을 통해 상황 지향적인 사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사실이나 개념, 인물 및 사건 등이 그 자체로 객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구성함으로써 탈맥락적인 학습 소재가 되지 않도록 한다. 학습을 위한 모든 소재는 심층적으로, 그리고 시작과 마침의 연속선상에서 맥락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구성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일차 자료로 자서전이나 판례, 일기, 수필, 영화, 소설,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다원적인 문제(질문 거리)가 들어 있는 소재를 통해 학습 문제를 탐색하도록 내용을 제시한다. 창의적 사고는 학습자의 내부에서 비롯되는 사고인만큼 학습자 스스로의 문제 의식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과서의 학습 소재는 학습자 간의 서로 다른 시각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가 동원될 수 있도록 질문 또는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이에 해당하는 질문으로는 학습 내용에 들어 있는 중심적인 아이디어와 관련된 질문, 학습자의 문제 의식을 명료하게 하는 질문,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을 맺는 질문, 질문의 범위와 수준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질문, 맥락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질문, 도전적이고 확장적이며 상황 지향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질문 등을 들 수 있다.
-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활동에 동원된 사고 과정을 반성(Metacognition)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와 필요한 기능을 안내한다. 창의적 사고의 첫 단계는 제시된 학습 자료의 매개로 시작되지만, 학습 자료의 매개를 통하여 경험한 자신의 사고와의 재귀적 만남을 통하여 상승적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학습 자료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첫 단계에서 나타나는 창의적 사고이지만, 자신이 인식한 문제 의식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금 문제 의식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등의 사고는 사고의 사고, 즉 초인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귀적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가 심층적 확산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교과서는 학습자 자신의 사고를 다시금 사고하게 하는 기회와 관련된 기능을 안내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사진과 삽화뿐만 아니라, 도표, 지도, 그래프, 다이어그램 등과 같은 시각적 자료를 통하여 마음의 눈을 동원하여 학습자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작 지향적인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Ⅳ. 창의적 사고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

창의적 사고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에 대하여 학습자가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질문과 무관한 엉뚱한 답을 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유나 근거 없이 고집하며 문제를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대하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교사의 지도가 미흡하거나 학습 자료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학습자 자신의 내적인 성향에서 비롯되는 등 여러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요인이 무엇 이든지 간에 이러한 부정적 현상은 교과서 개발자 및 교사 등 교육 현장과 직접 관련을 맺는 주체들이 창의적 사고 교육을 위해 유의해야 할 현상이다. 이에 대표적인 오류 두 가지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유사성 원리에 대한 오류 현상을 들 수 있다. 유사성 원리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일반성을 보임을 의미한다. 즉, 주어진 문제의 해결책이 다양할 수는 있어도 해결책 간의 차이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 상호 간에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해결을 위한 문제 의식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거리 및 차원의 다름을 보일 수 있을지라도 최종적인 해결책은 그러한 거리나 차원과 무관하게 일반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학습자는 문제의 핵심이나 중심 부에서 멀리 떨어진 엉뚱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향을 보여 유사성 원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오류와 관련해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사는 창의적 사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나는 가장 분명한 해결책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자문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특성 원리에 대한 오류 현상을 들 수 있다. 해결을 요하는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와 차별되는 그 문제만의 특수성을 지닌다. 일견 유사해 보이는 문제들도 명료하게 분석할 경우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후 신생 독립 국가들이 독재 정치를 했다는 면에서 유사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각 나라의 독재 정치는 서로 다른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특수성과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나라마다 해결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 정치를 보인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독재 정치 해결책에 관한 자신의 선경험에 의존하여 유사한 일반적인 문제로 전환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독특성 원리에 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창의적 사고를 박스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비유하기도 한다. 박스의 내부가 비판적 사고에 지배당하는 세계라면 박스의 외부는 창의적 사고가 작용하는 세계로 구분된다. 박스의 외부에 있는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박스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박스의 속성과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그에 대한 처방이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논의한 창의적 사고의 성격에서 확인하였듯이 비판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에 선행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때 비로소 창의적인 해결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해결책은 문제점에 내재해 있다는 말과 동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독특성 원리에 관한 오류와 관련해서 창의적 사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어진 문제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상황과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Davis, G.A. & Rimm, S.B.(1985).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Prentice-Hall1.
- Lipman, M.(1991), *Thinking in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nsky.
- Newmann, F. M. (1991 a). Promoting higher order thinking in social studies: Over view of a study of sixteen high school departmenrs.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Vol. XI X, No. 1, Winter: 324-340.
- Resnic, L. B. (1987). *Education and learning to think*.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 Torrence, E. P.(1974). *Torrence tests of creativity thinking: Norms, technical manual*. Princeton, N.J.:Personnel Press/Ginn.

수준별 수업과 교과서 개발 -반성 및 전망

글 |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



I. 우리나라의 수준별 교육 정책에 대한 반성

(가) 수준별 이동 수업의 도입

제7차 교육과정과 더불어 우리 학교 교육에서 수준별 교육이라는 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교육이 수준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역전앞’과 같은 불필요한 반복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수준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 교육의 내재적인 조건 중의 하나인 “교육은 수준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학교 교육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학생들은 연령이나 학년에 따라 획일적인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공업화되면서 이른바 포디즘(Fordism)이라는 패러다임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른바 ‘과학적인’ 학교 경영이 강조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나이에 따라 학년별로 편성하기 시작하였고, 학생들은 나이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같은 학년도에 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무시하면서 동일 학년으로 편성하여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비수준별’ 학교 교육이라는 관례가 형성되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포디즘적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적 경제 패러다임에 적합한 학교 교육은 어떤 형태를 띠까? 바로 교육의 내재적인 조건에 알맞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이나 관심에 적합한 수준별 교육이 그 대답이라고 본다. 평균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 조직된 교과서의 내용은 하위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으로, 상위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내용으로 다가오게 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동일한 학년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대신에 가르치려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각 학생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수준별 수업이 요청된다.

(나) 수준별 교육 정책의 진화 과정

우리나라의 수준별 교육 정책의 진화 과정은 교과서를 기준으로 볼 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획일적 교과서를 사용하는 단계, 둘째, 보충 심화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는 교과서를 사용하는 단계, 셋째, 수준별 보조 교과서를 사용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 구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수준별 교육은 단속성보다는 연속성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적용 진화를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 새 교육과정의 주된 아이디어가 수준별 교육이었다. 이때, 우리 교육계에서는 수준별 교육의 실행 가능한 형태를 수준별 이동 수업으로 보고, 교과 내용의 위계적 성격으로 인하여 학생 간의 개인차가 특히 심한 수학과 영어 교과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른 반을 편성하여 이동 수업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이 중 고등학교까지 적용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6차 교육과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중 고등학교에서 제7차 교육

과정에 적용될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수준별 내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6차 교육과정기의 '획일적 교과서'를 가지고 수준별 이동 수업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당연히 수준별 수업 담당 교사들이 수준별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다. 이 시기가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면서 획일적 교과서를 사용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강조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수준별 교육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교과서가 등장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기본 공통 내용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각 단원 말미에 심화 내용이나 보충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이른바 '수준별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기본 공통 내용이 교과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준별 내용은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명목상의 수준별 교과서이지 실질적인 수준별 교과서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 시기에도 수준별 수업 담당 교사들이 수준별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다. 이 시기가 심화 보충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는 수준별 교과서를 사용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2007년에 고시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말보다는 수준별 수업이라는 말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육과정 자체를 수준별로 다양화하는 수준별 교육과정보다는 동일한 공통 교육과정을 편성하되,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준별로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력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하나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 교육과정(common curriculum)의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교육과정은 동일하지만,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교사가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해당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가르치는 수준별 수업의 실시를 권장한다. 교실에서 교사의 수준별 수업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에서는 중등학교 수학과 영어 교과에서는 기본 교과서 외에 수준별 보조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수준별 보조 교과서를 별도로 개발하여 보급되기 때문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수준별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해

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었다. 이 시기가 수준별 보조 교과서를 사용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II.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수준별 보조 교과서의 개발

(가) 수준별 보조 교과서 개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에서는 중등학교 수학과 영어 교과서가 '기본 교과서'와 '수준별 보조 교과서'로 개발되었다. 수학의 보조 교과서는 '수학 익힘책'으로, 영어의 보조 교과서는 '영어 학습 활동책'(Activities)으로 개발되었다. 수준별 보조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편찬상의 유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학과 수준별 보조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수학 익힘책

1. 익힘책의 개발 방향

(4)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따른 수준별 교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익힘책의 구성 체계

(3)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수준별 교수 학습이 가능하도록 익힘책의 내용을 구성하며, 내용의 비약이 없도록 한다.

3. 내용의 선정과 조직(내용의 선정)

(7)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에 적절한 문제를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문항의 난이도 수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수준별 보조 교과서의 내용 구성 현황

새로 개발된 수준별 보조 교과서는 해당 교과의 교과서 수만큼이나 많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수학과 영어의 경우 '기본 교과서'와 '수준별 보조 교과서'를 같이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준별 보조 교과서는 수학의 경우 중학교 27종, 고등학교 18종이 개발되어 있으며, 영어의 경우 중학교 25종, 고등학교 17종이 개발되어 있다.

수학과 영어의 수준별 보조 교과서 종수

과목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27	18
영어		25	17

새로 개발된 수학과 영어 보조 교과서는 출판사나 저자에 따라 내용 구성과 제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별 보조 교과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수학과 영어 각

교과별로 무작위 표집한 4종의 교과서의 일반적인 구성 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한 후, 각 교과별로 1개의 교과서를 샘플로 삼아 주된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중학교 수학 보조 교과서 내용 구성 체제 예시

구분	출판사	(주)교문사	(주)천재문화	웅진씽크빅	대교
저자		이영하, 홍 정희, 한동승, 오정현, 김기연, 원유미	최용준, 한대희, 박진교, 김강은, 신태양, 배명주	박윤범, 남상아, 최소희, 홍유미	정광식, 김정현, 오종래, 임윤영
수준 표시		*, **, ***	★, ★★, ★★★		★, ★★, ★★★
구성 체계		○ 중단원 들어가기 전에 ○ 중단원 준비 학습 문제 ○ 소단원 수준별 탐구 활동 과제 ○ 개념 확인 및 익힘 문제 ○ 수준 확인 문제 ○ 보충 심화 문제 ○ 컴퓨터 활용문제 ○ 읽을거리 ○ 대단원 학습 정리 ○ 대단원 종합 평가	○ 되짚어 보기 ○ 교과서 다시 보기 ○ 확인 문제 ○ 열린 학습 ○ 익힘 문제 ○ 평가 문제 ○ 자신감 키우기 ○ 종합 문제 ○ 수학 실험실 ○ 수학 산책 ○ 수행 과제 ○ 쉽터	○ 단원 도입 ○ 알고 가기 ○ 주제별 내용 정리 ○ 문제 ○ 마무리 평가 ○ 이야기가 있는 여행 ○ 수학으로 보는 여행 ○ 색다른 문제 ○ 영역 마무리	○ 배운 내용 다시 보기 ○ 활동으로 익히기 ○ 익힘 문제 ○ 개념 상자 채우기 ○ 문제로 익히기 ○ 단원 평가 ○ 보충 문제 ○ 도전 문제 ○ 수행 과제 ○ 수학 속 논술 여행 ○ 수학 속 게임 ○ 수학 산책

중학교 영어 보조 교과서 내용 구성 체제 예시

구분	출판사	(주)에듀앙	(주)천재문화	(주)도서출판 디딤돌	(주)능률교육
저자		이소영 외 6인	함순애 외 4인	이창봉 외 5인	장영희 외 4인
수준 표시		보충(Make-up) 기본(Baseline) 심화(Advanced)	보충(Orange Time) 기본(Green Time) 심화(Blue Time)	보충(Green) 기본(Yellow) 심화(Red)	보충(Easy) 기본(On Level) 심화(Challenging)
구성 체계		Listening Speaking Words Reading Writing Test Yourself Have Fun Culture	Video Activities Speaking Reading Writing My Portfolio	How to Say it How to Write it Sound Listen & Speak Let's Read More Focus on Forms Let's Write More Vocabulary Make it Real	Check Your Level Words, First Listening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Do it Yourself Log on the World Sum up Test

(다) 수준별 보조 교과서의 주요 특징

- (1) 중학교 수학 보조 교과서
(천재 문화: 최용준 외)
 - 1년 동안 사용할 수준별 보조 교과서의 분량이 268쪽임(답지/ 해설 포함할 경우 359쪽임.).
 - 중단원의 앞부분에서 '되짚어 보기'란을 제시하여 해당 단원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된 이전 학습 내용을 제시함.
 - 소단원별로 교과서 다시 보기/ 확인 문제/ (생활에서, 좀 더) 알아봅시다/ 열린 학습 (내 생각에는/ 아차!/ 나도 한번) 등의 내용을 제시함.
 - 중단원 뒷부분에 익힘 문제를 제시함. 익힘 문제는 3단계로 제시함. 먼저, 소단원별로 구분하여 수준별 문항을 제시하고, 수준별 문항의 난이도는 ☆표 개수로 표시함.
 - 중단원 뒷부분에 평가 문제도 제시함. 평가 문항은 첫째,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의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둘째, 난이도에 따라 문항별 배점을 달리 표시하고 있으며, 셋째,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항을 하나 선택하여 푸는 수준별 선택형 세트 문항도 제시하고 있음.
 - 학생의 수학적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교과서 군데군데에 수학 실험실/ 수학 산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2) 중학교 영어 보조 교과서
(능률 교육: 장영희 외)
 - 1년 동안 사용할 수준별 보조 교과서의 분량이 158쪽임(답지/ 해설 포함할 경우 213쪽임.).
 - 교과서 첫 부분에 Check Your Level(2쪽 분량의 문항)을 제시하고 있음.
 - 매 단원마다 Words, First/ Listening/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문항/ 활동 제시하고 있음. 모든 문항/ 활동에는 해당하는 수준을 표시하고 있음.
 - 단원 말에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Do it Yourself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
 - 학기 말에 Log on the World/ Sum up Test를 제시하고 있음.

Ⅲ. 미래형 학교 교육과 수준별 교육: 스웨덴의 사례

미래의 학교 교육은 어떤 모습을 띌까? 그리고 수준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필자가 알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스웨덴의 사례는 미래의 학교이며, 미래의 수준별 교육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공립 학교의 성격을 지닌 푸투름스콜라(Futurumskola; 미래 학교)와 사립 학교의 성격을 지닌 쿤스캅스스콜란(Kunskapsskolan; 지식 학교)이다. 1999년에 문을 연, K-9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푸투름스콜라는 전세계적으로 방문자만 8,500명이 넘었고, 이를 벤치마킹한 학교가 스웨덴에서만도 25개에 이른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등에서도 이 학교 모형을 수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99년에 문을 연, 쿤스캅스스콜란은 6-9학년 과정을 운영하는 22개의 중학교 과정 학교와 10-12학년 과정을 운영하는 10개의 고등학교 과정 학교가 있다. 총 30개의 학교에서 750명의 교사를 고용하여, 10,00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스웨덴 고등학생(10-12학년 학생)의 약 15%, 중학생(6-9학년 학생)의 약 10%가 쿤스캅스스콜란에서 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도 2개의 쿤스캅스스콜란을 설립 중에 있다.

푸투름스콜라와 쿤스캅스스콜란은 공립과 사립이라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 공급자 중심의 기존 학교에서 벗어나 학생 각자의 필요에 알맞은 개인 맞춤형 학습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학년, 학급, 시간표 등을 해체하고 무학년제의 혼합 능력 집단을 편성하거나 개별화 학습을 강조한다. 학교에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기보다는 학생이 매주 또는 매일 자신이 공부할 내용, 교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 국가 교육과정에는 각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만이 제시되고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이나 수업 시간 운영은 단위 학교의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쿤스캅스스콜란에서의 수준별 학습과 수준별 교과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쿤스캅

스스쿨란에서 학생들은 수학, 영어, 외국어를 단계(steps)별로 학습한다. 수학, 영어, 외국어는 모두 1~3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선택하여 스스로 정한 시간에 스스로 정한 시간만큼 공부한다. 쿤스캡스스쿨란에서 학생들은 언제든지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단계에 해당하는 자료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 웹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이 공부할 단계의 자료를 출력하면, 그 자료가 그 학생에게는 수준별 교과서이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동일한 형태로 제본된 교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단계마다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후 평가시에 합격(G), 우수(VG), 최우수(MVG) 등급을 매기기 위한 기준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단계로 공부하는 수학, 영어, 외국어 교과목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단계를 빨리 나갈 수도 있고, 천천히 나갈 수도 있다. 요컨대, 개인 맞춤형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진다.

IV. 미래의 수준별 교육: '수준별 수업'에서 '수준별 학습'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수준별 교육 정책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1단계)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2단계)으로 그 강조점이 변해 왔다. 여기서 필자는 새 교육과정에서는 강조하는 수준별 수업은 미래의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학습'(3단계)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평생 교육 사회가 평생 학습 사회로 대체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에서 '교육'은 '학습'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 또한 수준별 학습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준별 수업은 '수준별 교수 활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준별 학습 활동'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을 계기로 도입된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학교 교육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수준별 이동 수업을 강조하였고,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의 일차적인 강조점은 수준별 학습 활동보다는 수준별 교수 활동에 놓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보조 교과

서를 만들어 보급하게 된다. 수준별 보조 교과서를 일차적으로 교수 활동 자료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수준별 학습 활동 자료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준별 보조 교과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강의 중심의 수업 진행을 관례적으로 해 온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조 교과서가 일차적으로 수준별 교수 활동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앞의 스웨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데 유용한 수준별 학습 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교수 활동 자료와 학습 활동 자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거나 불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 수준별 교수 활동 자료와 학습 활동 자료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자료, 즉 교과서를 교수 활동 자료로 활용할 것인가 학습 활동 자료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누가 어떤 맥락에서 해당 자료 또는 교과서를 일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이다. 교사가 학급 전체 앞에서 강의하면서 주로 활용한다면 교수 활동 자료의 성격이 부각되고, 학생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에서 주로 활용한다면 학습 활동 자료의 성격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준별 학습 활동 자료로서의 수준별 '교과서'(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수준별 '학습서')는 단순히 교과서 개발이나 구성만의 문제라기보다 교육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활용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굳이 구성주의 학습 이론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궁극적인 성과가 교사가 잘 가르치는 데 있다기보다는 학습의 결과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또는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와 같은 학습의 성과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과서가 활용되는 맥락의 변화가 더욱 중요해 보인다. 미래의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내용 또는 단계를 선택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준별 학습의 개념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수준별 학습을 강조할 때, 학생들이 학습에 활용하는 자료들은 곧 수준별 학습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수준별 학습 자료 또는 수준별 교과서(학습서)는 곧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좋은 자료를 의미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이론적 기저

글 | 손병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제협력연구센터 소장)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 교과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 개혁 방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1996년 8월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교육 개혁 방안에서 ‘다. 각종 교육 자료의 전자화, 멀티미디어화 및 한국화 추진’에서 전자화 자료와 전자 도서, 시디-롬(CD-Rom) 교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교수 학습 자료와 교재의 디지털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교재나 자료의 전자화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한국형 저작 도구, 학습자의 연령과 특성에 적합한 도구 소프트웨어, 특수 목적의 교과 학습용 도구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지원 등’을 위한 지원을 교육 정보 산업 발전 지원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 교육 개혁 방안에 포함된 개혁 방안의 내용은 정보 통신 기술의 교육적 도입의 목적이 단순히 교육 자료나 정보의 전자화나 멀티미디어화를 통하여 학습 내용 또는 학습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컴퓨터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이 교수 학습에 있어 매체일 뿐만 아니라 도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 컴퓨터가 지니는 교육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를 지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즉, 컴퓨터의 발명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어서, 컴퓨터 본래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적 필요와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의 이론적 근거를 아래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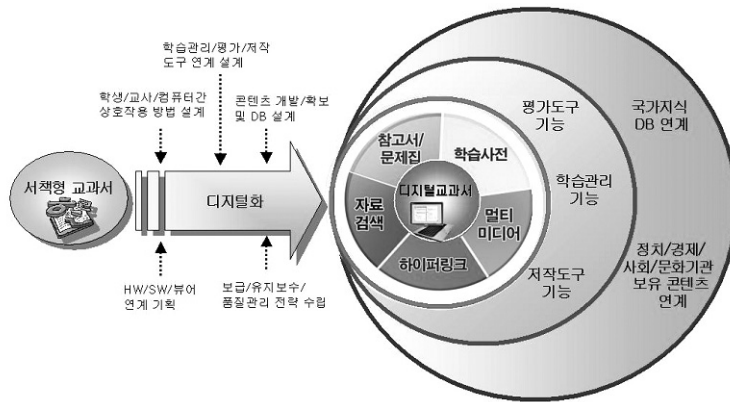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 정보화 방안과 흐름상 연계가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전신인 한국교육개발원 컴퓨터교육연구센터,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포함하여)에서는 단속적으로 전자 교재나 전자 교과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²⁾ 이러한 바탕 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보급 중 장기 계획을 수립(2002. 4. 23.)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전담 기구로 지정하였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과학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실험 적용, 디지털 교과서 개발 표준안 연구,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디지털 교과서 개발, 디지털 교과서 실험 학교 적용 및 효과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2007년 디지털 교과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수립에 있어, 디지털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이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였다. 이 계획에서 정리한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³⁾

이 개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을 함에 있어 필요한 인쇄 및 멀티미디어 자료, 참고서와 문제집, 사전류 등과 각종 평가, 학습 관리, 저작 도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각계 각층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 국가가 조성하는 데이터베이스(DB) 등과 학습이 연계될 수 있는 체제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도구 및 교수 학습을 지원하고 운영함에 필요한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 체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저작 도구는 기존의 콘텐츠 저작 도구만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학습자의 지적인 도구와 같다고 보기에는 용어 자체에 제한점이 있다.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을 정리함에 있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즉, 학습자가 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이외에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 학습, 개별화 학습과 더불어 상호 작용 기반의 협력 학습, 다양한 교수 학습 모형과 방법 등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

이와 같이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기반이 된 근거로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 인지적 도구로서의 정보 통신 기술, 집단 지성 이론과 웹 2.0 등을 들 수 있다.⁴⁾

더 나아가 디지털 교과서는 인간의 욕구 변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 기술을 활용하는 응용 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I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주요 이론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이론, 교수 학습 설계 관련 이론, 콘텐츠 개발 관련 이론, 정보 통신 기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관련 이론 등이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최근의 교육적 변화의 핵심인 구성주의와 이와 연계되어 있는 집단 지성, 인지적 도구론 등이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자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디지털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구성주의

구성주의로는 constructivism과 constructionism이 있으며, 디지털 교과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Piaget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외부의 자극에 의해 혼란이 생겨도 이를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자신의 사고의 틀 또는 지식의 구조(스키마)로 구성하여 안정된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학습자는 교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해석하여 받아들인다. 그리고 지식은 세상, 사람 그리고 사물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지, 단순히 전달받은 정보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학습 이론(이전의 학습 이론을 의미)은 학습에 있어서의 저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변화는 스스로의 생명이 있다고 보고 있다.⁵⁾

디지털 교과서의 기반이 되는 또 하나의 이론으로는 constructionism을 들 수 있다. Papert에 따르면 constructionism은 Piaget의 constructivism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학습을 점진적인 행동의 내재화를 통해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공통이라고 하고 있다. 다만, Papert는 특정한 맥락 하에서 지식의 형성과 전이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다른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식의 형성과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Papert는 학습에 있어 외부적 보조물(Papert는 디지털 매체와 컴퓨터 기술에 중점을 두었다.) 개인 발달의 상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우리의 내부의 느낌들과 아이디어가 학습의 핵심이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이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디어들을 형상화하고, 가다듬도록 하며, 우리들이 다른 이들과 소통하도록 돕는다고 본다.⁶⁾ Papert는 보다 나은 학습은 교사가 보다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학습자가 지식을 보다 잘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또, 학습자는 자신이 구성물을 만들면서 그리고 만든 후에 다른 사람들과 서로 공유함으로 사회 문화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⁷⁾

Piaget처럼 내재적 안정화 과정을 중시하던 Papert처럼 동적인 변화와 외부적 보조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학습자가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기반이 중요하다.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히 e-book처럼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학습자가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상되고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 지식을 넓혀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학습에 적합한 'tools to think with'를 고안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콘텐츠 설계에 기존의 다양한 교수 학습 이론과 이에 바탕을 둔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른 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세대 또는 NML(New Millenium Learner)⁸⁾에게는 구성주의에 기반한 교수 학습 이론들이 더 큰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과거에 접근하거나 활용할 수 없었던 교수 학습 환경과 방법이 디지털 교과서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나) 집단 지성과 웹 2.0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은 다수의 개인의 협력과 경쟁으로부터 나온 함께 한 또는 그룹 지성이라 할 수 있다.⁹⁾ 집단 지성은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 통신 기술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활동 영역인 사이버 공간의 탄생과 발전에 따라 제시된 개념이다. Pierre Levy는 그의 저서 집단 지성(L'Intelligence collective)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지식, 정보, 개인의 아이디어 등이 자유롭게 교류, 공유, 분배될 수 있는 이상향으로서의 집단 지성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¹⁰⁾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 세력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거나 배분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공유 그리고 경쟁과 협력에 바탕한 집단 지성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집단 지성 정신의 구현에 가장 큰 기반은 웹 2.0이라고 부르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wikipedia가 있다. wikipedia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개방형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싸이월드 같은 서비스도 웹 2.0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UCC(User Created Content), 개인 블로그 등도 웹 2.0 기반의 정보와 지식의 교류, 공유, 참여와 협력의 통로이자 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지성의 특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의 행태와 맞을 뿐만 아니라 구성주의 학습이론과도 잘 어울린다. 사회적 구성주의와 집단 지성의 특성은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에 있어서도 자신의 인지 구조의 확장 내지 확대 과정에 타인 또는 타인들의 생각, 아이디어, 의견의 교류, 토론, 경쟁과 협력 등과 개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도구로서도 매우 유용하다.

지식은 개인이 의미를 해석하고 공동체 속에서 공유하는 구성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접근한다면,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전문가 등이 상호 작용하는 교수 학습이 살아 있는 교육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자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나 교사와의 교류는 물론,

현실적으로
과거에 접근하거나 활용할 수 없었던
교수 학습 환경과 방법이
디지털 교과서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

외부의 전문가나 타 학교 또는 지역의 학습자, 관계자 등과의 교류, 협력,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다.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학습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습 결과(또는 중간)가 디지털 산출물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다른 학습자나 교사 등과 쉽게 공유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 상호 평가, 협업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제도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한다면, 자연스럽게 e-portfolio 체제의 도입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 학습 도구

정보 통신 기술은 매체로서 또는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¹⁰⁾ 특히, 과거의 매체들과 달리 정보 통신 기술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크다. 도구(tool)란 어떤 제재를 원하는 형태로 조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나 장치를 말한다. 이를 분석하여 정리해 보면,

첫째, 기구나 장치는 실물일 필요는 없다. 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있어 도구로서 기여하는 상징적인 체계일 수도 있고, 지식을 변환시키는 정신적 전략일 수도 있으며, 상징적 제재를 조작하거나 창조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

둘째, 도구는 도구로서 이용되도록 문화적 또는 자연적으로 고안된 목적, 사용되는 방법과 기법을 실행하는 데 적합한 기능과 지식이 필요하다.

셋째, 개념 정의가 암시하는 것에서 도구는 도구로서의 기능 그 자체 이상의 기능 달성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도구는 기계 장치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기계 장치는 많거나 적거나 그 기능에 있어서 독자적이나, 도구는 그렇지 않다. 도구는 도구로서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에게 의해 능숙하게 조작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로 볼 때, 도구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서 어떤 제재를 목적에 맞게 가공 처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보조적 수단 기구이며, 보다 상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구는 사용자의 지식 기능 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²⁾

컴퓨터를 교육적 도구로서 개념화를 시도한 사람은 Taylor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학교에서 컴퓨터의 역할을 Tutor, Tool, Tutee의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¹³⁾ 그러나 이 당시에는 컴퓨터를 도구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다. 현재는 컴퓨팅 여건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도구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을 교육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정보 통신 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할 때 정보 통신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지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나누어 보면, 사고 도구(thinking tool), 의사소통 도구(communication tool), 자료 조사 분석 도구, 자료 제작과 변환의 도구, 지식 공동체 구축의 도구, 지식 정보 관리 도구 등이 있다.¹⁴⁾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과 교사가 가르치는 과정에는 정보를 다루는 여러 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 특히 지적인 활동을 정보 통신 기술은 지원해 줄 수 있으며,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교과서에는 이들 도구와 지원 기능이 포함되거나 연계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디지털로

제작, 유통, 관리되는 환경에서 학습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서책형 교과서 내에서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에는 기본적인 자료 정보 탐색, 입수할 수 있는 기능과 입수한 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범용의 도구 소프트웨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한 교육적 목적에 맞게 개발된 교육용 도구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디지털 교과서에는 범용의 도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특수 용도의 학습용(수업용도 포함할 수 있다.) 도구들은 개발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맺음말

디지털 교과서의 기술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웹 2.0을 대체할 웹 3.0, 세멘틱 웹과 지능적 검색 시스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인터넷, 고속 이동 중에도 대용량의 정보 소통이 가능한 무선 통신 등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구현되고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학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에도 진정한 의미의 학습은 흔히 있는 일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개념이나 원리를 배운 학습자가 이를 다른 상황에 응용하여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은 학습을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필자의 오랜 고민 중의 하나가 교원들의 연수였다. 컴퓨터가 학교에 보급되던 초기에 많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연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서 사용법에 대한 연수의 경우, 제재로 공문서 작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황(워드 프로세서를 가르치는 수업이 아닌 일반 교과 수업)에는 거의 전이되지 않았다.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 작성용이며, 문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워드 프로세서 사용법을 익혔음에도 이를 다양한 상황에 맞게 응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학습 결과로 습득한 지식, 기능 등을 상이한 상황에서도 적용하고, 응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계는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있어 기존의 교과서 개발에 활용되었던 행동주의 기반의 교수 학습 이론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고, 교육계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종합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디지털 교과서는 최신 이론과 지식, 기술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책형 교과서에 비하여 비용도 많이 드는 현대 과학 기술의 집합물이다.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보다 생동감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은 너무도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난 현재의 NML(New Millenium Learner)들의 사고와 행태는 그렇지 않은 세대들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NML들에게 적합하면서, 그들이 활동할 세계의 특징에 부합되는 교육 환경, 방법, 모형이 필요하다. 디지털 교과서는 미래형 교과서이다. 교수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직접적인 활동, 공동체의 협력과 경쟁,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배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교육은 과거로부터 후세에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것이며, 혼란함 속에서 변함 없는 가치와 의미를 가진 무엇을 깨우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되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

참고 문헌

- 1) 이때, 필자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전문 위원으로서 교육 정보화 분야를 담당하였다. 이 방안을 제안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려한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있어 자신의 지적 또는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도구로 컴퓨터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과거 시청각 교육 등에서부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 경험은 풍부하며, 이에 대한 이론과 경험은 전자화된 자료나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에 전이하기 용이할

것이며, 자료로 보고 접근하는 경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지닌 약점과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즉, 컴퓨터를 이용하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다고 해도, 단순히 좀 더 사실감 있고 정교한 자료와 정보를 풍부하게 전달, 제공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인쇄 매체인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함에 따른 한계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 2) 손병길 외 4인(1997). 전자 교과서 개발 지침 연구.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 3) 이곳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은 교육인적자원부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常用化) 방안(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 방안에 강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학습자가 여러 형태의 자료와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저작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인지적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에 이 저작 도구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의 설정과 계획의 수립에 참여한 필자의 개인적 입장으로는 이 '저작 도구'라는 용어보다는 좀 더 학습 중심의 입장에서 '학습 도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4) 디지털 교과서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이론들은 기존의 교과서와 관련된 이론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의 구현 기반인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과 이의 응용 기술인 소프트웨어 기술들인 정보 통신 기술은 기본적으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론들이 필요하다.
- 5) Piaget's Constructivism, Papert's Constructionism : What's the difference?(Edith Ackermann) 출처 learning.media.mit.edu/content/publications/EA.Piaget%20-%20papert.pdf
- 6) ibid.
- 7) Papert S. & Harel I. (1991). *Constructionism*. Cambridge, MA: MIT Press.
- 8) 2004년 초에 발표된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서 보면, 모든 연령의 아이들이 e-mail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학년에서 12학년의 아이들에 있어 온라인 활동 1순위는 e-mail로 나타났으며, 2위는 게임이었다. 또, 7학년에서 12학년 아이들의 54%가 친구의 집 전화번호보다 대화명을 더 잘 알고 있어, 아이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달라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7학년에서 12학년의 아이들 중에서 67%가 새로운 과제의 주제에 관해 조사를 할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거나(10%),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거나(9%), 교과서에 찾는(5%) 것에 앞서 온라인으로 찾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은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추가적(extra)'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통합된 일부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응답자의 81%가 인터넷이 없으면 그들의 학교생활과 개인적 삶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 7월에서 8월에 실시된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의 35.3%는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22.2%의 학생은 1주일에 3~4회, 응답자의 23.8%는 1주일에 1~2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용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1회 사용 시간이 1~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35.9%로 제일 많았으며,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도 27.2%, 2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16.4%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 기술의 사용이 학생들에게 보편화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9)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Collective-Intelligence>
- 10) Pierre Levy(1994), *L'Intelligence collective*, 권수 경 역, 집단 지성, 2002.
- 11) 매체(media)는 medium의 복수 개념으로 라틴 어 'medius'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에는 'between' - 맺어 주는 역할, 다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수업 매체라고 하는 경우는 교수 학습이라는 전달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송 수신자 사이에 전달하는 매개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가공하고 변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와는 다르다. 그러나 최근 매체가 교재나 자료로 한정하지 않고, 매개체의 이용 방법, 전달 방법 등 방법론적인 측면이 포함된 광범위한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다.
- 12) 손병길 외, 교수 학습을 위한 도구용 소프트웨어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3.
손병길, 컴퓨터의 도구적 활용, 전국 학교 컴퓨터 교육 연구회, 제6회 세미나, pp.1~19, 1994. 8.
- 13) Taylor, R. P. ed(1980), *The Computer in the School* : Tutor, Tool, Tutee, N.Y., Teachers College press.
- 14) 자세한 것은 손병길(2007. 12. 31.),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고찰, 한국교과서연구학회지 제1권 제1호(통권 1호) pp.51~63, 참조
- 15) 웹3.0은 지능적 검색 기술을 대표하는 세멘틱 웹(Semantic Web) 기반으로 더욱 인간과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 개발되고 있다. XML은 웹상에서 내용, 스타일, 구조를 분리해서, 확장성과 유연성 있게 웹 페이지 등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확장된 인터넷 언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Window 기반의 플랫폼과 Linux기반의 플랫폼이 적용되고 있다. 향후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어떠한 형태의 기기(예를 들어, 휴대폰 등과 같이 화면의 크기가 다양하고 이동성이 큰 단말기)로도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서 본 우리 교과서의 특징

글 | 이용숙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면서

현재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이 한창이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더 많은 다른 나라의 교과서들을 우리 교과서와 비교해 볼수록 좋은 교과서 개발에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는 1986년, 1995년, 2002년 등 세 차례에 걸쳐서 본격적인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각각 수백 페이지의 두꺼운 보고서를 냈던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교과서와 비교한 우리나라 교과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 교과서 개발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986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프로젝트 책임을 맡아서 6개국(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초등학교 3학년의 전 과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 구성 및 외형적 체제와 수업에서의 활용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1,200여 페이지(2권)의 보고서를 만들었다(이용숙 외, 1986.). 이때 들었던 생각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참 부럽다!’는 것이었다. 제4차 교육과정 시절이었던 당시의 우리나라 교과서는 조악한 종이의 질, 작은 판형, 흑백 위주의 인쇄, 천편일률적이고 미적 감각과는 거리가 먼 삽화 등 우선 외형적으로 보아도 외국 교과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 내용 구성면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대부분 외국 교과서가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중심으로 채워졌다.

1995년 9월 만에 다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의 책임을 맡아서 같은 나라의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개 교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이용숙 외, 1995.). 6차 교육과정 시기였던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이후

두 번이나 교과서가 개정되어서, 1986년 교과서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교과서는 개선되어 있었다. 그 사이에 비교 대상이었던 다른 나라들은 대개 교과서가 한 번만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덜 부럽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더 부럽다!’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교과서가 조금이라도 못해 보인 것은 일본 국어 교과서 하나뿐이었고(일본 국어교과서도 몇 년 후 다시 개편), 한 번만 개선된 다른 모든 교과서와 두 차례에 걸쳐서 개선된 우리나라 교과서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져 있었다.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교과서 단가가 상당히 인상되면서 교과서가 우선 외형적으로 많이 개선되었고, 2002년 실시한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이용숙 김영미 전영미, 2002.) 교과서의 질적 격차가 예전보다는 약간 줄었다는 느낌을 받았다.¹⁾ 특히, 외형적 체제의 개선, 학생 일상생활과 연계된 활동의 제시, 개인차 반영을 위한 심화 학습 내용의 제시, 더 흥미 있고 풍부한 학습 내용의 제시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영역에서도 아직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큰 개선이 시도되지 않은 영역도 상당히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 비교 연구 경험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외국 교과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사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제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 후, 교과서 개발을 위한 외국 교과서로부터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II.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교과서의 특징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이미 강조하기 시작한 몇 가지 요소들이 더욱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조점은 1) 학교와 교사 재량의 다양한 개별화 수업의 실천 강조, 2)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과 자기 주도적/상호 작용적인 학습자 중심 학습의 강조, 3)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의 다양성 강조, 4) 통합적 학습의 강조, 5)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데 주목적을 두는 과정 평가 강조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이용숙, 2006.):

- 1) 학교와 교사 재량의 다양한 개별화 수업의 실천 강조: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개별화 교육 강화
- 2)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과 자기 주도적/상호 작용적인 학습자 중심 학습의 강조: 자율화와 융통성, 적극적 상호 작용을 통한 자율성과 창조성의 성장과 학습자의 인격적 존엄성 존중
- 3)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평가 방법의 다양성 강조: 다양화를 통한 학습 효과의 극대화과 전인 교육의 실천
- 4) 통합적 학습의 강조: 학습 효과와 학습자의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 능력 향상
- 5)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데 주목적을 두는 과정 평가의 강조: 융통성 있게 개별화된 상호 작용적 평가로 학습자의 인격적 존엄성과 전인적 성장, 학습 효과 증진

III.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교과서 개발을 위한 외국 교과서로부터의 시사점

여기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교과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외국 교과서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지면 관계상 중요한 것 몇 가지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특히, 영국, 미국, 프랑스의 교과서는 모두 이미 1980년대부터 이러한 다섯 가지의 방향으로 내용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이용숙 외, 1986.), 이후 새로 개발된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의 방향은 더욱 강조되었다(이용숙 외, 1995; 이용

숙 김영미 전영미, 2002.). 따라서, 새 교육과정의 정신을 살리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세 나라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독일 교과서도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목에 따라 차이도 있으나, 최근까지 개발된 교과서를 보았을 때 더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은 위의 세 나라 교과서라고 생각된다.

(가) 학습량은 축소하되 통합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서 개발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에 따라서 과도한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교과서에서의 지나친 학습 내용 반복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를 과목별로만 분석한다면,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는 학습 내용 반복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교과와 모든 학년의 교과서 내용을 한꺼번에 놓고 비교해 보면, 외국 교과서에 비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각 교과와 교과서 개발진 간의 협조가 별로 없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내용의 순서대로 단원의 순서를 정해서 교과서를 개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과정 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교과와 학년별 학습 내용 전개에 있어서 모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먼저 배워야 다룰 수 있는 내용이 과학에서는 수학보다 아래 학년이나 전 학기에 이미 등장하는 등의 문제나 ‘환경’, ‘통일’과 같은 단골 소재들이 국어, 사회, 도덕 등 여러 과목에서 여러 학년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을 오히려 잃게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외국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적을 뿐 아니라, 반복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교사의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일부 내용을 먼저 다루거나, 지나치게 반복되는 내용은 빼고 지나갈 수 있으며, 아예 교과서 대신에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에서는 이는 불가능하다. 출제를 공동으로 해야 하고, 내신 제도로 인하여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현실에서 교사의 재

량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재량권이 있다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교과서 재구성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쉽고도 합리적인 것은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전 교과와 학습 내용을 함께 늘어놓고서, 이를 여러 교과와 전문가가 함께 분석하여 전 교과와 단원의 순서를 같이 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반복될 것 같은 내용은 통합하여 하나의 단원으로 만들고, 과목별 단원의 순서를 가장 효율적인 순서가 되도록 바꾸고, 절약되는 시간에는 특히 중요한 학습 내용 몇 개만이라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단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미 개발이 끝났거나 끝나 가고 있는 저학년용 교과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교과서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작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교과서가 개발된다면 자연스럽게 교과 통합적인 내용의 구성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제7차 교과서는 단위 내 주제 간의 통합은 어느 정도 이론 반면, 여러 단원의 학습 내용의 연계나 각 교과와 여러 학문 영역 간의 통합, 그리고 여러 교과 간의 통합은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한 학년의 여러 교과와 단위 구성을 한꺼번에 놓고서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다각적인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이처럼 통합적인 교과서 구성의 실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미 통합적인 내용 구성이 되어 있는 외국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모든 소단원이 역사를 중심으로 지리와 사회 과학의 여러 영역이 연계되도록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강조한다. 예컨대, ‘예술과의 관련’, ‘기술 공학과의 관련’, ‘문학과의 관련’, ‘현재와의 관련’ 등이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어, 교사가 충분히 다른 교과와 통합된 수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제7차 사회과 교과서는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

아 실제 수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한 중학교 교과서가 ‘교실 밖 탐구’에서 명시적으로 타 교과와의 통합 학습을 추구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위에 예로 든 미국 교과서처럼 통합된 수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과 활동을 자세하게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나)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과 함께 문제 해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인 탐구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제7차 교과서는 제6차 교과서에 비해서 학습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해진 편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와 경우 설명문 형식으로 딱딱하게 제시되는 본문의 양을 크게 줄이는 대신에, 제시된 읽기 자료나 교실 밖에서의 조사 결과의 활용 등을 요구하는 문제 해결 활동 학습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 예를 들어서, 한 출판사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거의 절반이 활동 학습에 할애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 주도적 활동 중심의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지문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문은 문제 해결형으로, 수업은 지식 전달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과 교과서에는 사실적 지식의 암기가 아닌 활동 중심의 문제 해결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이용숙 전영미, 2005.). 각 소단원을 여는 ‘읽기 안내’가 “—임을 안다.”, 또는 “무엇은—이다.”와 같은 명제 중심이 아닌 “노예를 가진 주 중 어떤 주가 남군에 가입하지 않았는가?”, “왜 남군과 북군에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몰려들었는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남군과 북군은 어떤 이득을 얻었는가?”와 같은 문제 중심의 질문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 내용 자료들이 단지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료를 활용하는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도 그 예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과 함께
문제 해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인 탐구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지 지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군에 가담한 주는 어떤 주인지를 찾아보라는 질문이나 그림을 보고 설명해 보라는 질문, 본문 중간 중간 ‘활동’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질문, 그리고 각 소단원 끝에 제시되는 ‘정리하기’에서 단원 내용의 이해 정도를 질문으로 묻는 것 등은 모두 암기가 아닌 활동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과를 강조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미국 교과서는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① 남북 전쟁의 어느 부분을 기념할 지를 결정하라. 그것은 사건, 사람, 집단, 또는 집에서의 삶과 같은 주제가 될 수도 있다. ② 어떤 형태-예컨대 기념물, 연극, 야외극, 또는 이야기-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라. ③ 종이에 계획을 써라. 예를 들어, 동상의 그림을 그리거나 야외극의 프로그램을 써라.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과 상의해보아라. 활동 중심의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는, 수업 진행 모습의 차이를 낳게 된다. 즉,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교과서의 지문만 문제 제시형이지 실제로는 말로서 설명하거나 책을 읽어 보는 것으로 활동이 끝나기 쉽다. 또, 학습 내용이 실제 이상으로 많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 우려도 있다.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방식으로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 활동에 참여하게 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학습 내용도 적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활동 중심의 문제 해결 수업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실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질문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의 과정 및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문제 해결 활동의 과정과 절차를 안내할 때, 서로 연계된 단계별 질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본문 학습 내용에서 출발하여, 학생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한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제 해결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 다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일련의 질문들을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단원 내용의 구성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1) 본문의 제시에 앞서서, 앞으로 읽을 본문 내용의 이해를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학습 문제에 해당하는 주요 질문들을 제시한다.
- (2) 편지, 일기, 문서, 연설문 등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보여 주는 자료들을 토대로 깊이 생각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여, 자료 해석 능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발상의 전환 등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3) 지도나 화보 등을 보고 답할 수 있는 질문(예: “이 그림은 어떤 점에서 군인들의 매일의 생활을 보여 주고 있는가?”, “당시의 전황을 나타내는 아래의 지도로 보아서, 조선군의 입장으로는 어느 지역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타당할까? 그 근거는?”)들을 별도로 제시한다.
- (4) 관점을 가지고 답해야 하는 질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남북 전쟁 당시 북군이 흑인을 군인으로 모병해야 했었을까?”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결정 후에 그 입장대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글을 써 보거나 토론하는 활동을 하

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 (5) 정리/복습 질문을 ① 주요 개념과 새로운 용어 확인 질문, ② 본문 내용 이해 확인 질문, ③ ‘본문 내용으로 보아 일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찾아보거나 또는 관점의 동의 여부 등 응용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를 돕는 질문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한다.
- (6) 이 단원을 왜 학습해야 했을까를 묻는 질문을 마지막에 제시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의 목표가 상당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 활동들이 상호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제시된다면,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학습 부담이 불필요하게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원 내의 학습 주제들 간의 통합성을 확보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 학습 주제를 결정하고 하나의 활동 결과를 활용해서 그다음의 문제 해결 활동을 하도록 연계된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핵심 주제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교과서에서의 개별화 학습 장치의 강화

제 7차 수준별 교육과정에 비해서 개별화 학습을 더욱 강조한 개정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개별화 학습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7차 교과서는 대단원의 마지막에 심화 보충 학습을 위한 활동들이 제시되는 등 개별화 학습을 위한 활동들의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소단원에 이런 심화 보충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한 단원 전체의 수업 시간 중에 1~2시간에만 개별화 학습을 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각 소단원마다, 가능하다면 각 차시마다 심화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지면이 현재보다 더 충분하면 좋겠지만, 지면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별화 학습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각 차시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활동의 마지막에 “이 활동을 먼저 끝낸 사람은 —한 활동을 더 해 보세요.”라고 몇 줄을 제시하고, 개인차에 따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활동의 경우에는 과제 해결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한 중간 힌트를

교과서나 지도서에 제시하는 것이다.

또, 이왕에 제시되는 심화 보충 활동에 대해서는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교사들에게 어느 것이 심화 활동인지 분명히 인식되지 않을 정도인 경우가 많다.”라는 교사들의 불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난이도의 차이를 더 분명히 하면서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서 분명하게 그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물론, 무조건 모든 선택 활동에 난이도의 차이를 두기보다는, 소단원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서 어느 것이나 선택해도 되는 선택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지도서에서 제시된 선택 활동들이 난이도의 차이는 없는 활동들임을 분명히 밝혀야 교사들이 겪는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심화 보충 활동이나 자유 선택 활동의 경우에는 더 흥미 있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본 학습 활동보다 흥미 있는 활동이 기다리고 있어야, 기본 학습 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교과서보다 흥미로운 학습 활동을 풍부하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외국 교과서의 학습 활동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학습 활동 개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어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수준별 학습용 활동과 교수 학습 자료들이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첫째, ‘의미 만들기’의 일부인 ‘본문과 관련 짓기’와 ‘텍스트 확장하기’와 같은 심화 학습 활동이 각 단원의 마지막이 아니라 각 소단원에 제시된다. 따라서, 매 차시에 기본 학습 활동을 빨리 끝낸 학생들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지면은 1쪽도 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시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교과서 인쇄비가 아니라 교과서 개발진에게 충분한 시간 여유와 인력이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둘째, 각 소단원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는 ‘선택: 포트폴리오 만들기’는 몇 가지의 자료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별 학습용 자료인 동시에 수행 평가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자료다. 일종의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선택: 포트폴리오 만들기’에는 네 가지 정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향수병’ 작

품의 경우, 자서전적 사건을 위한 아이디어 모으기, 연구/설명문 쓰기, 그림 그리기, 드라마틱 읽기의 네 가지 활동과 각각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교사들은 앞서 설명한 교재, 예컨대 포트폴리오 운영 제제나 워크숍 자원에서 기타 필요한 자료를 찾아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셋째, ‘삶을 위한 학습’은 한 단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심화 과제의 일종이다. ‘나는 누구인가?’ 단원에는, 시중의 상업적 광고를 하나 선정하여, 그 광고가 어느 대상을 위한 것인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인지, 광고의 주장이 현실적인지 등을 평가해 보는 활동, 실제 광고를 만들어 보는 활동, 소비자의 입장에서 광고에 대한 소감을 써 보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넷째, 미국 교과서는 본문에 풍부한 문학 작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관련 학습 활동 없이 시간이 남을 때 읽어 볼 수 있는 추가 작품을 더 제시하고, 이보다 더 많은 독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읽을 만한 책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어, 심화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는 전체 쪽수가 미국 교과서와 비슷하므로, 글자 크기만 줄이면 이러한 구성을 할 수 있는 지면 확보가 가능하다. 외형적 체제 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많은 지면이 필요 없는 ‘선택 작품 목록’을 간단한 작품 소개와 함께 각 단원의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라) 각 단원의 구성 방식을 그 단원의 학습 목표에 적합하도록 다양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우리나라 교과서는 교과별로 한 단원의 구성 방식이 정해지면, 모든 단원의 구성 방식을 획일적으로 같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각 단원의 핵심적인 학습 목표는 각기 다를 것이며, 이처럼 학습 목표에 차이가 있다면 이에 적합한 단원 구성 방식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단원에 제시되는 읽기 자료와 설명, 학습 활동 등의 요소들을 어떠한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국어 교과서는 문학 작품 중심의 대단원에서 첫 번째 소단원을

먼저 가볍게 학습하도록 한 후에, 해당 문학 장르의 양식에 대한 설명이나 기타 필요한 언어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러한 설명 내용을 이후에 제시되는 소단원들의 문학 작품에 적용하여 더 본격적인 학습을 하도록 구성하기도 한다.

또, 쓰기(글짓기) 중심의 단원에서는 활동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 이전에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글을 써 보는 간단한 과제와 함께 ‘전문 모델’(잘 쓴 글)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그 글의 순서에 따라서 그 부분의 어떤 점이 왜 잘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학생들이 글쓰기를 쉽게 느끼도록 만드는 동시에, 글을 더 잘 써 보려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단원의 전개 양식을 비슷하게 유지하기보다는 각 단원의 특성에 따라서 이처럼 단원의 내용 요소들을 적합하게 배열하려는 노력을 해야,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 교과서에 제시되는 질문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학습 목표 달성에 맞도록 제시하기

우리나라 교과서의 여러 요소 중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연구 관심을 덜 받아 온 것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문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각 단원의 질문 활용 방식이 유사하고 사고 확장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질문의 종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질문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거나, 혹은 제시된 학습 내용을 암기하거나 이해하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다분히 천편일률적이고 수동적인 학습 경험을 하도록 유도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내용이나 소재, 형식 등을 파격적으로 다양화하는 방식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인위적이고 추상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구성하므로 질문들이 딱딱하게 느껴져서 수업 중에 교사의 질문이나 시험 문제 같이 느껴지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생활 장면에서 다양한 소재를 취하고, 게임같이 생각되는 질문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심화 과제나 보충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좋은 질문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한

질문들이 개발되어 있는 외국 교과서의 분석이 특히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는 질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교과서에의 적용을 검토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 질문으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프랑스 읽기 교과서의 「심화 독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추리 게임 형식의 단계별 질문을 본문 내용과 연결된 주제로 제시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마치 게임을 하는 듯이 공부할 수 있게 하면서도, 주어진 질문이나 단서들을 주의 깊게 읽고 추리를 해 나가는 가운데 언어 기능과 추론 능력이 동시에 발달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경우, 심화 과제나 선택 과제로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독일 영국 교과서와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과제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 교과서의 '환경 단체에 정보를 얻기 위한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상세한 질문을 만들기', '쓰레기 처리 관련 조사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기', 그리고 영국 교과서의 '모르스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알고 싶은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기'와 같은 질문 만들기 과제들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스스로 질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의 학습 과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문 만들어 보기 과제가 단순히 '각각 질문을 3개씩 만들어 보시오.'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고 말아서는 안 된다.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실제로 다음 학습 단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문을 가져 보고, 그 의문을 언어로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독일 언어 교과서에 제시된 일련의 질문들처럼, 단계별 학습 과정을 연결시키는 방식은 학생들이 프로젝트형 학습 과제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설문 조사를 해 보는 학습 과제를 처음부터 내준다면 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끼겠지만, 독일 언어 교과서와 같이 실제 질문의 사례와 결과 처리의 사례를 만화와 도

표 형식을 활용하여 제시하면서, 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후 질문을 만들어 보고, ② 교실에서 질문을 해 본 후, ③ 답변을 해 보고, ④ 실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전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프로젝트를 끝내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독일 교과서에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미니 프로젝트를 각 단원에 2개씩 제시하여, 학생들이 많은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 보도록 하기도 한다.

넷째, 미국 교과서에 제시된 '되돌아 보기' 과정에 제시된 복습용 질문은, 주제가 비슷한 3개 정도의 읽기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비교하여, 표에 채워넣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 방식은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을 읽을 때, 주제별로 비교하면서 읽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사고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쓰기 과제를 좀 더 쉽게 하게 만드는 매우 좋은 질문 방식이다. 한국 교과서에서는 한 단원 내에 제시된 읽기 자료들이 상호 연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들이 여러 읽기 자료들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 글의 스타일 등을 비교해 보고, 말과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국 교과서에 제시된, '학생들이 읽은 자료 중에서 일부 측면(예: 등장인물 중 일부, 사건 중 일부 등)을 선택해서 그에 대해 읽기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서 제시해 보기(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친구에게 편지 써 보기 등)' 질문은 답변 과정도 사고의 확장에 도움이 되지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 보는 경험 자체가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질문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질문 방식은 또한 학생들마다 다른 측면을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의 발표가 다양해서, 학생들이 흥미 있게 듣기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장점도 있다.

여섯째, 교과서의 질문들은 되도록 실생활과 잘 연계되면서도 학습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미국 교과서는 수학 교과서에서 스포츠, 시장, 동물, 오락, 통신 수단, 예술 등 다양한 실제 장면을 배경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수학은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친숙한 내용을 다루는 분야라고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교과별로 한 단원의 구성 방식이 정해지면,
모든 단원의 구성 방식을 획일적으로
같이 만드는 경우가 많다.

손바닥과 발바닥 사진, 여러 강아지의 몸무게, 식단 짜기 등을 수학 문제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 과학에서도 소시지를 데울 때 구멍을 내는 이유, 오래된 가구의 표면에 작은 금이 가는 이유 등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영국 과학 교과서의 예처럼, 흥미 있으면서 사고 확장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질문의 제시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필수적 학습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화보(삽화와 사진, 지도) 활용 방식

교과서의 화보는 장식적 기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화보 자체가 학습 내용이 되는 필수적 기능의 화보나 본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제시하는 보조적 기능의 화보 제시를 많이 한다. 이 중에서 필수적 기능의 화보의 제시는 학생들의 학습을 다양하고 흥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말하기 듣기와 쓰기 교과에서 필수적 기능의 화보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읽기 교과서나 다른 교과와 교과서에서도 필수적 기능의 삽화 제시를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교과서에서 필수적 기능의 화보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교과서의 경우에 읽기 교과서는 물론 사회과에서도 화보가 본문 자체가 되는 경우가 많을 만큼, 필수적 기능의 아름다운 화보의 사용에 적극적이다.

표현 유형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프랑스 독일 미국 교과서가 본받을 만하다. 우선, 이들 교과서는 내용에 따라서 구상적 표현 반구상적 표현 환상적 표

현 사진 만화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같은 구상적 표현이라고 해도 연필 초상화, 크레파스화, 수채화, 색연필 그림 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적절히 안배해서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흥미 유발 및 장식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 프랑스와 미국 교과서에서 보는 바와 같은 풍부하고 흥미 있는(영화나 미술 장면의 사진 등) 사진의 제시도 타 교과와 연계된 통합적인 내용 구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을 만하다. 특히, 프랑스는 어느 나라보다도 사진 및 그림, 도표, 표, 지도 등의 화보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사진의 경우에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같은 과목의 경우에 거의 사진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삽화 또한 적절히 사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 교과서에 발견되는 도해적 표현의 삽화(만화 캐릭터 등), 일본 미국 프랑스 교과서 등에서 발견되는, 관찰 대상의 특징이나 내부 구조 관찰 실험 공작 과정을 세밀히 보여 주는 도해적 표현의 삽화나 섬세한 구상적 삽화의 제시 등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과학 교과서의 화보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학생들이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결과나 예측을 해야 할 내용을 처음부터 화보에 제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 교과서에 제시되는 화보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험의 결과를 보여 주는 화보가 제시되는 것은 프랑스 교과서의 사례와 같이, 학생들이 그 실험을 스스로 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험의 결과로부터 추론을 하도록 학습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 외에 외국 교과서의 화보 제시 방식의 시사점

으로는 화보의 크기를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하고, 제시 위치도 다양하게 함으로써 같은 화보를 가지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독일 교과서)을 들 수 있다. 또, 색도 사용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천연색의 비중을 늘려가는 데에 주력했으나, 부분적으로 흑백 인쇄나 2도 인쇄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화보가 다양해지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이나 독일 교과서로부터의 시사점이다.

IV. 맺는말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의 모든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구의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처럼 ‘성전’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학교 전체 또는 교사 개인이 교과서 없이 나름대로의 자료들을 복사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도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전체 내용의 80% 이상만 다루었으면 많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이용숙 외, 1986; 1995.). 또, 교과서를 다루는 경우에도 읽기 자료로만 사용하고 활동은 교사가 만들어서 실시하거나 다른 자료와 함께 통합해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교과서가 우리나라 교과서와 같은 지위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외형적 체제나 내용 구성 방식을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 관찰과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수업 관찰이 어렵다면 최소한 면담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 교장, 장학사,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자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질수록 제대로 된 시사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국 교과서로부터 시사점을 얻고자 할 때 또 하나의 주의 사항은 1차적인 분석만 간단히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수업 방식, 평가 방식 등과 연계시킨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연구 보고서에는 교과서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해야만 교과서

개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그룹 토론이 다양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만 하면 “이는 정확히 어떻게 표현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궁금함의 해소를 위해서는 실제 교과서 내용을 읽어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따라서, 모든 교과서 개발진이 읽을 수 있도록 분석 교과서의 대표적인 단위 1~2개씩은 전문을 번역해서 부록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

1)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 용역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열린교육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는 6개국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어, 사회, 영어 교과서만 비교하였다. 대신에 연구 대상 학교 단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다.

참고 문헌

- 이용숙(2001).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개선 방안 연구 - 실험본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실행연구 4호. 덕성여대 열린교육연구소.
- 이용숙(2005).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 내용 구성 체제 비교 분석. 교육과정연구 23(2).
- 이용숙(2006). 열린교육과 교육과정/평가. 한국열린교육학회 2006년 동계학술대회 <왜 열린교육은 지속되어야 하는가?> 발표 논문.
- 이용숙 김영준 백은순 이근남 조덕주 김소연(1986). 교수 학습 자료 활용 실태 및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인류학적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
- 이용숙 김영준 양미경 박순경 이근남 최성욱(1995). 교과서 정책과 내용 구성 방식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
- 이용숙 김영미 전영미(2002). 교과서 내용 구성 및 체제 개선의 방향성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열린교육연구소 연구 보고서(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후속 지원 연구 과제 답신 보고서).
- 이용숙 외 23명(1998).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수준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소 연구 보고서.
- 이용숙 외 27명(1999).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과서 내용 구성 방안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열린교육연구소 연구 보고서.
- 이용숙 전영미(2005).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 구성과 체제: 제6차 제7차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 비교 분석. 교육과정연구 23(1).

교과서 정책의 변화와 전망



글 | 민병관 ((전)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선진화팀장)

I. 들어가며

우리는 평소 ‘교과서적인 사람’, ‘교과서적인 말씀’, ‘교과서적인 행동’이란 표현들을 사용하거나 듣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교과서적인’이란 여러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 주로 ‘모범적인’, ‘정확한’, ‘정통인’, ‘완전한’이란 의미로 쓰이지 않는가 한다. 이러한 의미로 쓰여질 때 교과서는 ‘절대적인 진리, 또는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어 진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은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교과서는 ‘절대적인 진리 또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교수 학습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되어 교육과정 이수의 실체로 보여지는 것은 바로 교과서인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전과정에서 가장 확실하게 실체로서 남아 있는 것은 교과 교육과정이나 수업 장면이 아닌 교과서인 것이다.

그러기에 교과서는 온 국민들의 관심사이다. 내용의 정확성, 교과서에 반영되는 학문적 성과, 각 이해 집단의 반영 요구, 이념과 가치 등 교과 내용상의 구성을 둘러싸고 교사,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학계와 종파, 이해 단체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과서 발행의 주체, 교과서의 검정 시스템, 채택과 공급, 유통과 가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과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 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그 명분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교과서 정책은 바로 이러한 명분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지적 도야와 창의성과 사고력을 진작시킬 수 있으며,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하고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겠는가의 고민이 바로 새로운 교과서 정책의 출발인 것이다.

II. 교과서 정책의 새로운 전환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대한 모색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교과서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보다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과서 정책이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까지 선정되어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이명박 정부는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교과서 개발의 자율 경쟁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가격 사정제와 유통 체제(이익금 균분제) 개선’을 중요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주는 질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여 공급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은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과의 인과 관계, 개발에 필요한 시간, 검정 절차, 가격, 채택 등 정책 수행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는 교과서가 갖는 특수성이기도 하다.

(가) 교과서 개발의 주체 측면

교과서 개발의 주체를 중심으로 볼 때 교과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바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저작권을 갖는 국정, 민간에서 개발하여 검정 절차를 거친 검정 교과서,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

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승인하도록 인정한 교과서가 그것이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종래 국정 도서를 상당수 검정과 인정 도서로 전환시킨 바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까지 국정 도서였던 중등 학교 국어, 도덕, 역사 과목을 검정 도서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사고와 가치관의 측면에서도 보다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물론, 교육과정과 검정 기준의 범주 안에서 개발되는 것이지만 일정 부분 우리 사회의 성숙과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 초등학교 5~6학년 음악, 미술, 체육, 실과 과목을 모두 검정으로 전환하였으며, 초등학교 영어 교과목 역시 검정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 국어, 도덕, 사회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국정으로 유지하였으며, 과학의 경우 차세대 과학 교과서 개발과 당분간 국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하나 특징은 중등 학교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인정 도서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요청이기도 하였으나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에 이의 개발에 현장 교사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국정 도서의 인정 도서로의 확대도 진행되었다. 전문 교과, 외국어, 예술, 체육 계열 과목, 학생들의 선택이 적고 실습 과목의 성격이 짙은 전문 계열의 일부 과목들도 인정 도서로 전환하였다. 다만, 중등 교사용 지도서나 전문 교과의 인정 도서 전환과 관련하여 실제 인정 도서 심사를 담당해야 할 시 도 교육청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인정 도서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심의 없는 인정 도서'로 전환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교과서 개발에 민간과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확대 추진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차례의 구분 고시를 통하여 특별 활동 교사용 지도서의 인정 도서로의 전환과 필수 교과 및 수학 능력 시험 관련 과목 등을 제외한 전문계 고등학교 교과목, 예술계 고등학교 교과목, 필수 과목을 제외한 외국어계 고등학교의 교과목 등을 심의 없는 인정 도서로 확대, 전환하였다.

또, 행정 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을 담당하였던 특수 학교용 교과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여 교과서 개발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제 국가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 학교 교과서 및 수요가 많지 않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한 일부 전문계 고등학교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목은 수요를 고려하여 검정과 인정 도서로 개발이 가능해졌다. 교과서 개발에 민간과 학교 현장, 교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현장에 적합한 교과서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나) 교과서의 검정 시스템 강화

민간이 개발한 교과서는 다양하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과정의 구현이나 내용상의 균형성, 헌법 정신과의 합치, 내용의 정확성 등에서 검증되지 않을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을 주고,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커다란 부작용이 따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직접 교과서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민간 발행사로 하여금 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검정의 기본 계획을 제외하고 검정 공고,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심사위원 선정, 적격 부적격 판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확대, 위탁하였다. 이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교과서 검정 업무를 둘러싼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교과서 검정 전문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교과서 검정은 검정 위원들이 교육과정과 검정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검정 기준은 교과서 검정의 적격, 부적격 판정을 하는 지침이요 기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질 높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검정 기준을 강화하여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종래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국어, 도덕, 역사 과목의 경우 새로이 집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검정 교과서로 처음 전환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역사의 경우는 이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감수 기관으로 지정하여 오류와 불균형을 사전에 바로잡

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검정 위원도 종래 교과 교육 전문가에서 교과 전문가로 확대하였다.

또, 오류 없는 교과서 검정을 위하여 기초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기간 연장, 기초 심사 위원 확대, 재택 심사 제도의 도입 등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 교과서의 사전 사후 질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의 검정 출원 자격을 강화하였다. 교과서 발행 실적뿐만 아니라 검정 출원 시 전문 편집 인력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다) 교과서 발행과 유통

1980년대 이후 오랫동안 검정 교과서는 발행사들이 조합을 결성, 공동 발행과 공급을 유지하여 왔다. 이는 1970년대 발생한 교과서 과동의 수습책으로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과 이에 따른 부조리를 방지하고, 교과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순기능적 역할도 하여 그동안 교과서의 안정적 적기 공급에 기여하였고, 발행사들의 안정적 경영에도 영향을 도움을 준 바 있다.

그러나 공동 발행을 둘러싼 발행사들 사이의 이해 대립으로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교과서 개발의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지금까지의 공동 발행제는 일단 검정 심사에 합격하여 교과서로서의 지위만 확보하면, 교과서 질의 우열, 채택과 판매 매출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동일 교과목의 모든 검정 발행사들이 발행비를 보전받는 것은 물론, 이익금을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경쟁을 등한히 했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교과목의 경우에 10만 부의 매출 발행사와 500부의 매출 발행사가 이익금을 균등하게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왔고, 상당수 발행사가 발행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액임에도 불구하고, 발행비 전액 보전은 물론 이익금까지 균등히 배분받는 경우도 허다했다.

교과서의 공동 발행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법령 제29조 2항)과 검정 공고에 따라 정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받아 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

다. 발행사들은 '검정에 합격한 발행사는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여야 한다.'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 공고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동 발행을 수행하여 왔던 것이다.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에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 과제로 교과서의 유통 규제를 개혁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바로 공동 발행 제도를 개선하고 이익금 균분제를 혁파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개발의 경쟁을 저해해 온 공동 발행 의무제와 이익금 균분제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이는 발행사의 이해와 관련된 첨예한 문제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었다. 학교 현장과 발행사들의 의견을 들었고, 정책 연구 과제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8월 '2010년 검정 계획'을 수립, 공고하면서 공동 발행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를 2009년 검정까지 적용하였다. 다만, 발행사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2008년 검정에 합격한 검정 교과서에 대하여는 공동 발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제 검정 교과서의 공동 발행 여부는 정부를 떠나 전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겨진 셈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공동 발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008년 검정에 합격한 발행사들은 정부의 교과서 제도 개선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익금 균분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이미 30여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관행으로까지 굳어진 이익금 균분제를 일거에 혁파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또, 이익금 문제는 발행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었다. 결국, 발행사들은 이익금 균분제 자체는 혁파하되, 공동 지분과 매출액에 따른 분배를 병행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 도서로 개발된 교과서의 경우는 그 효용이 다할 때까지 종래 발행사들 간 합의했던 이익금 균분제는 유지하도록 하였다.

(라) 교과서 가격 제도

전국 이후 교과서의 가격은 국정과 검정을 막론하고 정부가 사정하여 결정하였다. 이는 교과서가 비록 민간에서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과서 가격 제도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고, 교과서를 지나치게 저가 정책에 묶어 두는 역할과 함께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 가격 사정제 개선’은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었다. 개선의 핵심은 교과서 가격을 다른 상품처럼 발행사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방향은 곧 ‘교과서 가격 자율화로 인식’되었고 가격 자율화는 다시 ‘교과서 가격 폭등’으로 비약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민간이 개발한 검정 교과서는 ‘상품’과 ‘공공재’라는 이중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시장의 원리에 부합하면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가장 주요한 교육용 매체이면서 전국민이 일정 단계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공공재로서 그 가격 제도에 있어서도 조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서 가격은 발행사들이 그 가격을 제안하고,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두어 가격의 무분별한 상승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교과서 가격 상한제는 일부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산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가격 사정제는 오래전에 마련된 것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선된 가격 사정제를 적용해 본 후에야 가격 상한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가격 사정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가격 사정제 개선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입법 예고안에는 가격 상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치게 상세하게 담고 있는 가격 관련 조항을 간소하게 하였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일일이 대통령령인 규정에 담을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칙에 담으면 되는 것이다.

Ⅲ. 교과서 정책의 전망

질 좋은 교과서 개발과 보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과서 제도 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교과서 제도 개선안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하드웨어적 기초를 수립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질 좋은 교과서가 개발되어 보급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교과서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전망을 해 본다.

첫째, 교과서 개발에 예측 가능한 로드 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과서 개발은 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개발 시간을 예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교과서는 교과서 개발 - 검정 - 주문 및 공급 - 적용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 각 단계별로 충분한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 개발의 특성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 교과서 개발과 관련한 주기가 일정하여 개발자들이 안정되게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기도 한다.

둘째, 교과서 전문 발행사들이 성장해야 한다. 현재의 교과서 발행사들은 백화점식으로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 모든 교과목에 대한 개발은 물론 참고서와 부교재 등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제는 교과서는 백화점식 개발에서 벗어나 교과목별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전문 발행사가 되어 양질의 교과서 개발의 전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지나치게 영세한 규모의 발행사들도 교과서 발행의 환경이 변하는 만큼 타 발행사와의 컨소시엄 등을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발행 교과목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서 검정이 보다 치밀하고 엄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 검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설립 또한 필요하며, 교과서 검정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교과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에 좀 더 많은 재정 투자 - 그것이 정부이든 민간이든 - 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교과서 검정 수수료와 같은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발행사들은 발행의 이익을 R&D에 재투자해야 한다.

또,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교과서 가격에 대해서도 품질의 향상에 상응하는 적정가가 매겨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교과서 가격은 초등학교는 약 1,000원, 중학교는 2,000원, 고등학교는 3,000원대 수준이다. 이러한 책으로 학생들은 일회적이 아닌 한 학기 또는 1년을 공부하고 있다. 참고서 가격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교과서에서 부교재가 필요 없는 양질의 교과서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다섯째, 교과서 외형 체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그동안 외형 체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차세대 과학 교과서의 외형 체제를 자율화한데 이어 타 교과서의 크기와 쪽수 제한을 완화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에 날개를 허용하였으며, 미술 교과서의 3~4학년 교과서의 합본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물론, 교과서 외형 체제의 변화는 창의적인 교과서 구성에 크게 기여하며,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교과서 가격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교과서 가격의 상한제가 이루어질 경우 가격 제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 외형을 자율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

여섯째, 현재도 교과서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교과서 개발의 자율적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종래의 이익금 배분 제도도 보다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고, 공동 발행 제도는 점차 개별 발행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다만, 민간 차원에서 발행사들의 컨소시엄이나 자율적 조합 형태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의 공동 발행은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검정 교과서의 전시와 주문, 공급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기 공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동 방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곱째, 교과서 용지의 사용에 있어 재생 용지를 사용하고,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외국 여러 나라들은 교과서 용지로 재생 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용지의 수입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제지에 사용되는 원목의 벌채를 줄이는 환

경 보호의 차원에서도 긴요한 일이다. 다만, 성장기 학생들에게 연중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서의 용지가 재생 용지일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여부를 신중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의 용지를 재생 용지를 사용할 경우,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덟째, 단위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있어 지금까지보다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과서 선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초 조사 연구로 확보한 자료 또는 검정 심사 위원들의 판정 자료들이 학교에 제공된다면, 양질의 교과서를 채택하여 주문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고, 발행사들도 현재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 투자의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검정 심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견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정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교과서 정책을 환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 연구 기관이 확대, 확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IV. 나가면서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 좋은 교과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발전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교과서 개발의 전문적 성격과 특성을 잘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국가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좋은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좋은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고, 엄정한 검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발행사, 저작자, 학교 현장, 정부가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

GJES¹⁾ 교실 수업 창조 전략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사의 역할 탐색



글 | 박보영
광양제철초등학교 교장

I. 시작하는 말

광복 이후 우리는 수업 개선, 수업 개선을 외치며 부단히도 노력하였다. 하지만, 무엇이 얼마나 변화했으며, 크게 바뀐 것이 무엇인가?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지금 우리 교실 현장을 보자. 교사 중심의 교실 수업, 교과서에 시녀가 된 교과서 중심의 교실 수업이 대다수가 아닌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행동주의 이론가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은 목표 이론을 적용하여 수업 목표를 만들고 학생들을 몰아 가는 수업을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잘못된 수업이라며 질책하는 현상을 보게 된다. 또, 수업 모형을 만들어 그 모형에 꿰어 맞추려는 수업을 강조하는 현상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교실 수업에서는 학생 중심 수업, 창의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수업들은 기본 정신이나 출발에서부터 자기 주도적 학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교육 개혁은 수업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 그리고 그 수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교사들이다. 교육 개혁은 교사들의 수업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수업은 교육의 중핵이며, 교원의 생명이다. 본인은 수업은 기존의 수업 모형을 적용한 교사의 수업 기술이 기 이전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 아이들 상호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그들이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므로 수업 개선이라는 말 대신에 수업 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교실 수업 창조 활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수업 시간에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 관계 형성은 매 순간마다 다시 올 수 없는 중요한 시간들의 연속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창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활동은 바로 창조 활동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실 수업 창조를 통하여 교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GJES 교실 수업 창조 전략을 안내한다.

1) GJES(Gwangyang Jecheol Elementary School의 약자임.)

이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이 되려면 어떤 수업이어야 하고,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 주기 바란다.

Ⅱ. 교실 수업 창조

(1) 기본 정신

교실 수업 창조라는 측면에서 훌륭한 수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도 빠짐 없이 배우는 자세와 경험의 축을 같이 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요, 교실 수업의 창조라고 본다.

교실 수업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수업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교재 내용이 쉬우면 교사도 학생도 버리는 수업이 된다. 즉, 교과서 위주의 수업은 버리는 수업이 된다. 특히, 저학년에서 당연한 것이나 쉬운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든지, 말하도록 하는 수업은 할 필요가 없다.

(2) 교실 수업 창조의 접근 방법

- 들어 주는 관계를 구축하는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동료성을 구축하는 수업 연구 협의회의어야 한다.
- 업무 분장의 간소화와 교무회의 축소를 통한 연수 시간을 확보한다.
- 모든 교원이 수업을 연 2회 공개한다. (교장, 교감 포함)
- 수업 연구 후, 수업 연구 협의회를 가진다.
- 모든 교원은 한 과목의 교과 연구회 활동에 참여한다.

(3) 교실 수업 창조 전략

① 계획 수립

- 교사 연수, 수업 연구, 위원회 구성, 수업 저해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마음 다스리기 체조 구안(4분 30초: 집중력 향상), ‘좋은수업’ 책 발간 활용
- 전략 (1) ‘4단계 교수 학습 활동 구안 적용’
- 전략 (2) ‘대립 토론(Debating) 프로그램 개발 적용’

② 전략 (1), (2) 수립·적용

- 수업 현장에서 ‘수업 준비: 수업 연구: 수업 연구 협의회’의 3요소를 가하는 노력 비중이 4:2:1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1:4:2 또는 1:3:3으로 전환해야 한다.
- 교사 준비: 목소리 낮추기, 학생의 발언에 귀 기울이기, 모두 참여하기
- 수업을 계획하여 안을 만들기: 기존의 모형을 탈피하고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교사의 창의적인 수업 안으로 작성(교수 학습 계획안 기본틀 참조)한다. 모든 수업을 통하여 탐구력, 창의력이 향상되도록 계획을 세운다. 다양한 탐구 활동을 ‘주제(제재)가 설정되면, 계획, 활동, 표현, 반성’의 4단계에 의한 수업 계획을 세운다.
- 전략 (1) ‘4단계 교수 학습 활동 구안 적용’
 - 계획: 무엇을 어떻게 탐구하여 제재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때, 자기가 세운 계획

을 옆 사람과 협의하고 다시 이를 모둠에서 협의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공통된 계획을 세운다.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세우기: 1인 → 옆 사람과 협의 → 팀에서 검토 → 공통된 계획)

- 활동: 무엇을 어떻게 탐구하여 제재를 해결할지에 대하여 세운 계획에 따라 탐구 활동을 전개하고 기록한다. (계획에 따라 활동하기: 활동 내용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 표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나타낼 것인지, 표현할 것인지를 고안한다. 발표 및 게시 등을 통하여 공통점을 찾아 공유한다. (정리한 것 발표(표현)하기 - 공유하기: PPT, 실물 화상기, 게시물, 역할극, 보고서, 글 등으로 표현)
 - 반성: 잘된 점을 찾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심한다.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도 고심한다. (평가, 반성하기)
- 4단계 교수 학습 활동 계획안 기본 틀

제재			
단계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자료, 유의점
계획	계획 세우기	· 무엇을 어떻게 탐색하여 제재를 해결할 것인지를 계획 세우기 · 개인이 할 것인지, 팀을 짜서 할 것인가?	
	해결하기	· 계획 세운대로 활동한다. · 기록하면서 활동한다. ·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 교사는 조력자로서 활동한다.	
활동	기록하기	· 과정, 내용, 방법, 결과, 공통점, 상이점, 찾아 낸 점, 잘된 점, 잘못된 점, 현상, 있었던 점, 느낌 등을 빠짐 없이 정리한다.	
	정리하기	· 탐구 활동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것인가? · 보고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	
표현	나타내기	· 무슨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나타낼 것인지, 표현할 것인지를 고안한다. · 보고서, 그래프, 학습지 등으로 정리한다. · 게시, 전시, 회람 등을 통해서 탐구 방법, 내용, 결과를 공유한다.	
	공통점 찾기	· 서로 의견 나누기로 공통점, 상이점 등을 찾는다.	
반성	정리 및 반성하기	· 잘된 점을 찾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잃게 되었는가?	

○ 전략 (2) ‘대립 토론(Debating) 프로그램 개발 적용’

대립 토론(Debating)은 말로써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토론을 하고, 토론이 끝나면 얻은 점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운동 경기와 같이 말로 하는 경기라고 말할 수 있다. 대립 토론은 반드시 2팀, 즉 찬성 반대 팀으로 나누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토론이 끝나면 심판원들이 채점한 점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대립 토론을 정리하여 설명하면

- 하나의 안건(토론의 주제)을 가지고,
- 대립하는 두 팀으로 나누어,
- 일정한 규칙(인원수, 시간, 진행 방법, 심사 방법 등)에 따라 토론하고,
- 토론이 끝나면 이긴 팀과 진 팀이 결정된다.

대립 토론은 비평적이고 창의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방법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5가지 능력, 즉 읽기(Reading), 조사하기(Research), 쓰기(Writing), 말하기(Speaking), 듣기(Listening) 능력을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립토론이다. 이를 적용하면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교사의 역할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한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며, 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보조해야 한다. 말로 하기에는 매우 쉽지만 교사는 부단한 노력 없이는 힘들다. 처음부터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지는 않지만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교사들끼리 서로 협력하며 고쳐 가려는 의지와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Ⅲ. 맺는 말

자기 주도적 학습은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바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요즈음 교육 현장에서 시도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감히 단정지으면서 교과서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교실 수업을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 계획해야 하며, 창조활동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교사들은 앞 절에서 제시한 교사의 역할을 받아 들여 교사의 역할 수행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교육 현장은 교사의 변화에 의해서 교실 수업이 변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변하며 교육이 변하게 되고,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판단된다. **연**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교의 역할 논의



글 | 김종식
부산용문초등학교 교장

I. 학교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

도대체 인간은 왜 학교라는 공교육 체제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이 물음에 대하여 어떤 이는 급증하는 사회 문화의 전수를 가정 차원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기관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인간 개인의 자아 실현과 그로 인한 행복감 증진을 보다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학교의 역할과 당위성을 어디에 두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구현은 제대로 된 국가 수준의 의도된 교육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토대로 단위 학교 학생들의 실태와 수월성에 기초한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 및 실천은 학교 교육의 역할과 당위성을 높이는 데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어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흥미, 적성을 수용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기초한 빛

깔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단위 학교의 교사들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게 되는데, 여러 연구를 기초로(최호성, 1996; 한명희, 1996; 함수근, 1995) 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의사 결정의 수준과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과와 학년 목표를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나 학교 실정에 맞게 한다.

둘째, 교육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 축소, 통합하여 조정한다.

셋째, 교육 내용의 순서를 계절이나 행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넷째, 학습 시간을 증대, 감축할 수 있다.

II. 학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

단위 학교는 의도적인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어떠한 교육 목적 아래 어떠한 교육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이 답변서에 의해 교육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각 학교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서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육과정’, ‘국정 또는 검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학습자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와 '학생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으로
점차 전환시켜 나가는 길이 교육 전문가로서
교원의 위상을 찾는 확실한 실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교과 진도표’, ‘고정된 교과 시간표’ 정도의 문서 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지역 특성,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교장의 철학, 교사의 필요 등은 교육과정 개발과는 별도로 학교 교육 계획 수립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공동체가 상호 협력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교직 사회에는 반사적 보수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주의는 교사의 양성 및 선발, 사회화의 과정, 그리고 학교 내 조직 풍토 등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교직 사회는 새로운 변화보다는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성이 강하여 이제까지의 교직 경험을 통해 습득해 놓은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관’을 내면화해 가야 한다. 전통적으로 교육계에서는 교사를 ‘교육 연구 결과의 소비자’, ‘교육과정 전달자’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교사들은 주체적으로 교육 현상에 대한 탐구를 하기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처방해 주는 해결책을 실천하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

발의 실무를 담당할 실제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요구된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 공동 과업이라고 볼 때, 전담 기구의 설치의 필연적이다. 이 위원회는 학교의 규모, 교원의 특성 등에 따라 학교별로 설치하는 독립형이 있을 수 있고, 소수의 학교들이 협업하는 통합형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새로운 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고려할 수 있다. 교과부의 ‘학교운영위원회 실시 지침’에 의하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지역 사회의 인사, 즉 교육 행정 기관, 교육 전문가, 동문 대표, 기업인 등의 조화로운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의 책임 경영제를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로,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끔 요청받고 있다. 그 가운데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기능은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교육 심의 기능에는 ① 학교 현장 및 학칙의 제 개정, ② 학교의 예 결산, ③ 선택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프로그램 및 검정 교과서의 선정, ④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 및 교과 교육 심화를 위한 유상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 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⑥ 학교 급식 내용, 급식 품의 선정 조달 방법, 급식비의 결정 등 학교 급식

과 관련된 사항, ⑦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⑧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성열, 1998.). 이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할 내용의 상당수는 학교 교육과정에만 아니라 비공식적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역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에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게 된다면, 학교 내에는 두 개의 상설 위원회가 가동되는 형편이어서 양자의 조화로운 운영이 절실히 된다. 결국, 학교 중심 교육과정을 정착시켜야 할 시점에서, 단위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는 민주적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교는 실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①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 체제 정비
- ② 학년 단위, 교과 단위 교육과정 연구 위원회 구성, 운영
-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교육과정 참여 방안

모색

- ④ 학교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 ⑤ 학교 자율 장학 활성화로 교육과정 연수 강화
- ⑥ 다문화를 포함한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III. 빛깔 있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언

교실에서 구현되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단위 학교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학교는 학년 교육과정을 동학년 교사가 공동 개발하여 이것을 단위 학급 교육과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공동으로 개발된 학년 교육과정을 학급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학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고 단위 학급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학급 교육과정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개발의 실제 모습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학교의 모습을, 그리고 전개되어야 할 이상적인 개발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하나의 예시 수준으로 해석하고 해당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에 기초해 수정 보완 삭제 대체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위 학교가 개발한 학교 교육과정은 다음의 관점에서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 교육과정 수립에 구성원과 얼마나 함께 공리하였나?

셋째,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이 구현되도록 설계되었나?

넷째, 학교예산과 연계된 교육과정인가?


다섯째, 학급 교사가 계획, 실천, 평가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가?

이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가 마인드(Mind) 있는 학교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시키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당해 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및 담당 교과의 수준별 교수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무리 국가 기준을 잘 만들고 지역 지침을 세밀하게 마련해 주어도 교육 실천자가 명확한 교육 의도를 가지지 않고 교육 목표와 내용을 뚜렷하게 다루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지 아니한다면, 의도적인 학교 교육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학교가 어떠한 교육 의도와 교육 목적, 목표로써 어떻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며, 또 어떻게 평가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목표,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물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수준별 교수

학습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게 하며, 학생의 이해 수준은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흥미 적성 진로까지도 고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미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개선 의욕과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학교 교육과정에 임하는 교원들의 기본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될 것이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오늘의 학습자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와 ‘학생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으로 점차 전환시켜 나가는 길이 교육 전문가로서 교원의 위상을 찾는 확실한 실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연구사, 교육연구, 2004. 3, 4월호
- 김종식 함수곤, 교육과정 개발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03.
- 김종식 외, 학급경영의 이론 연구 실제, 교육과학사, 2004
- 매일경제 지식부 한승희, 학습 혁명 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2000.
- 부산광역시교육청, 맞춤수업 2008의 사용법과 학교, 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 2008.

교육 기관 평가의 과제와 개선 방향

글 | 구자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소장



I. 교육 기관 평가의 의의와 현황

교육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현장인 학교를 얼마나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각급 학교의 제반 현상과 문제의 요인을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뿐 아니라, 발전 방향과 개선 방법을 창출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 기관 평가의 목적이요, 기능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 기관 평가는 교육 기관이 처한 제반 상황과 여건 및 교육 효과 달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교육 개혁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체계적 과정으로서의 작업이다. 그러므로 교육 기관 평가의 결과는 어떤 교육 기관이 안고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교육 선진 국가들은 물론, 교육에 의한 국가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하나같이 교육 기관 평가를 통한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교육 기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교육 기관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교육 기관

평가는 1980년대에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후 1990년대 중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5년부터 교육 기관 평가는 교육 개혁 과제의 하나로 제안되었다. 그 후, 대학 종합 평가와 학문 분야별 평가, 교원 양성 기관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초·중등학교 평가 등 교육 기관 등급별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대학 평가는 주로 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여, 교원 양성 기관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되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받아,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1997년 이래로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의 일환으로서 시·도 교육청 주관의 학교 평가가 시행되었다. 한편, 1999년 교육부의 ‘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서 국가 수준의 학교 종합 평가 방안이 제시되면서 2000년부터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 주관의 학교 평가와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 체제의 문제성이 제기되면서 2004년 이후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는 중단되었으며, 시·도 교육청 주관의 학교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신 한국교육개발원은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 평가의 전문성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역할이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 기관 평가는 교육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와 진로 선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계속 높아갈 것이 확실하다.

II. 교육 기관 평가의 문제점

그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정을 투입하여 실시한 각급 학교의 평가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여건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 추진 체계, 평가 기준, 평가 추진 절차, 평가 위원 전문성,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각급 학교 평가의 효용과 가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나간 10여년 간의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보완된 평가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택희(2005)는 학교 평가가 긍정적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학교 평가가 형식적이 되고 부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우려한 바 있다.

첫째, 학교 평가를 통해서 현재의 학교 모습을 어떻게 변화 개혁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모형 없이 막연하게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평가 이유와 논리성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학교 평가 대상 학교 수에 비해서 예산, 인원, 일정은 물론, 전문성이 부족하여 평가의 질이 낮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

셋째, 학교 평가 결과를 나타내 줄 평가 지표의 수가 많으면서도 교육의 결과에 대한 지표가 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하여 존재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성취해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빠지거나 소홀히 된 평가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평가 지표에 학교 교육 결과에 대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지표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학교가 정말 교육을 잘 하였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결코 간과하지 못할 학교 평가상의 문제점이라 하겠다.

그런가 하면 교원 양성 기관 평가에 대한 시론에서 서정화(2006)는 그동안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첫째, 평가를 총괄하는 추진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평가를 추진하는 기관과 평가 대상 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미흡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각 대학 간에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도 형식적이었다.

둘째, 평가의 지향점이나 목표, 평가의 기준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평가가 진행돼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셋째, 촉박한 일정에 쫓겨 대학들의 형편과 학사 일정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즉흥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고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소홀했다.

넷째, 일부 평가 위원들의 교원 양성 기관 대학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실 인식의 결여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 방식,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다섯째,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팀 간 점수의 편차가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 많은 대학들을 평가하다보면 평가 팀에 따른 점수가 엄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장치를 마련 운용하지 못해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객관적인 양적 지표가 주가 된다고 하지만 질적 평가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예민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평가 팀 간의 점수 차에 관한 조정에 마땅

히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교육 기관 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위와 같은 의견은 그 외의 대학 평가나 학문 영역별 평가 및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도 거의 공통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교육 기관 평가의 개선 방향

교육 기관 평가는 학교가 처한 제반 상황과 여건 및 교육 효과 달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하여 학교와 교육 발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당연한 절차요, 과정이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같은 교육 선진국의 교육 기관 평가처럼 교육 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 기관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교육 기관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현행 교육 기관 평가 제도가 더욱 더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교육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 기관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 연구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교육 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향후 교육 기관의 책무성 제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정 중심 평가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 기준의 구체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기준 내지 지표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수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 정책이나 교육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평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는 '확인하기보다는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라고 볼 때 최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평가 대상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특성화를 유

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 평가 결과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 기관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평가 결과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평가 결과에 따른 미흡 학교 컨설팅, 평가 결과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구체적인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끝으로, 교육 기관 평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급 교육 기관 평가 전문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의 각종 교육 기관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 수준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필요를 충족해 주는 데 교육 기관 평가는 당연한 절차요, 과정이다. 비록 한국의 교육 기관 평가의 역사가 짧지만 그 필요성과 가치는 인정되고 있는 수준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도적 미비, 공감대 형성의 부족, 전문성 부족, 형식화, 일회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개선 보완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정상화 운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신받는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급 교육 기관의 발전에 직접 공헌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내실있는 평가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적, 제도적, 전문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

☉ 참고 문헌

- 남궁지영(2008). 학교 발전에 직접 공헌하는 학교 평가로 개선되어야 한다. 2008 KEDI 연구위원 칼럼: 한국교육의 현안과 과제(현안보고 OR 2008-9). 한국교육개발원.
- 서정화(2006. 1. 19).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대한 평가. 한국교육신문.
- 정택희(2005). “시·도 교육청 학교 평가를 해부한다”, 교육개발 2005 1+2월호, 21-29.



글 조정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

1. 북한 교육의 특징과 초·중등 교육과정

북한에서 학교 교육을 통하여 길러 내고자 하는 인간은 공산주의 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이다. 1999년 8월에 공포된 북한의 교육법에서는 북한 학교 교육의 목적을 “건전한 사상 의식과 깊은 과학 기술 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각각 덕육, 지육, 체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한 학교 교육의 목표와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나, 덕육의 주요 항목으로 공산주의 혁명 사상과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꼽는다는 점에서 남한 교육과는 차이를 지닌다.

사상 의식, 과학 기술 지식, 체력이라는 세 가지 교육의 요소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강조되는 것은 사상 의식이다. 사상 교육의 주요한 내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주체 사상, 당 정책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 공산주의 교양,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사회주의적 준법 정신 등이다. 과학 기술 교육은 학생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선진 과학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동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규정된다. 과학 기술 교육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회의 성원으로서 누구나 다 알아야 할 필수

적인 지식인 일반 지식과,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자가 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교육한다. 체육 교육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노동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체육 교육은 학생들의 사상 의지를 단련하며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용감성과 대담성, 강인한 투지와 인내성 등을 키워 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교육에서 적용하여야 할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 교육에서 당성, 노동 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계급성을 띠는다고 보며, 노동 계급적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체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세우는 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둘째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에 있어서 자국의 것을 위주로, 학생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정통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교육과 혁명 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노동 계급의 혁명 실천과 결합하여야만 ‘쓸모 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혁명 실천이란, 정치적인 실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나라, 실제 사회 생활에서 요구되는 제반 활동을 포괄하는 것이다. 넷째,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조직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유치원 높은 반 1년을 포함하여 소학교와 중학교까지 11년간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 학제는 4년제 소학교, 6년제 중학교, 4~6년제 대학교의 기본 구조로 되어 있고, 유치원은 낮은 반과 높은 반으로 구분하여 높은 반 1년 과정을 의무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초 중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은 정치 사상 교과를 제외하면 대체로 남한 중등 학교의 교과목과 유사하다. 초등 교육과정의 경우, 남한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교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교과별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이 더욱 세분화되어 있다.

북한의 초 중등 교과과정은 정치 사상 교육과 기술 교육의 양대 과목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소학교는 4년 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어린 시절' 등 정치 사상 교과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도덕', '국어', '수학', '자연', '위생', '음악', '체육', '도화 공작', '외국어', '컴퓨터' 등 총 13개 과목을 가르친다. 외국어와 컴퓨터 교과는 2008년도 9월에 개설되었으며, 외국어로는 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중학교는 6년 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 활동',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력사', '사회주의 도덕', '현행당 정책' 등의 정치 사상 교과와 '국어', '문학', '한문', '외국어', '력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제도', '컴퓨터', '실습' 등 총 23개 과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교육과정의 구조

북한에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목적과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까지도 그 기본적인 방침이 당에 의해 결정되어 당 및 교육 행정 조직을 통해 하달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과정과 성과가 통제된다.

1999년에 제정, 발표된 교육법과 김일성, 김정일의 교육 관련 교시, 최고 인민회의 및 내각이 제정한 법령 및 규정 등이 교육과정 실행의 법적 근거가 된다. 특히, 김일성 사후인 1990년대 말에 전반적인 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제정된 교육법은 1977년에 발표되었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하였던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제도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원칙과 절차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에 의하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 강령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강령은 남한의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교과목의 구조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법적 문서이다. 교육 강령은 교육과정안과 교수 요강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교육과정안은 교과목별 시수가 표시된 교과목 편제표를 의미한다. 교육과정안에는 학기와 방학, 수업 주수, 각 학교 및 학년별, 수업 형태별 수업 시간 수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남한의 교육과정 총론 중에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부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수 요강은 '교원이 자의로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교수하던 무질서한 현상을 퇴치하고, 엄격히 제정된 국가적 문건에 의하여 목적 지향적인 교수를 진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1949년부터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던 교사용 수업 지침서로, 남한의 교육과정 각론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교수 요강은 교과 해설, 시간 배정표, 요목, 참고 문헌 등으로 구성되어 교과 교육의 목표, 학년별 내용 체계, 단원별 교수 목표 및 주요 내용, 단원별 시간 배정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

북한에서는 당과 국가 기구가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사들의 수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 발행과 보급을 독점함으로써
교과서에 수록될 지식의 선정과정을 전적으로 통제한다.

다. 초·중등 학교의 교육 강령은 중앙 교육 지도 기관인 교육성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며, 고등 교육 부문의 전문학과와 과목의 교육 강령은 해당 교육 기관이 작성하여 중앙 교육 지도 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과정은 학제의 변화나 정치·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교육과정의 전반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정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가 이루어지지만 남한처럼 ‘제 몇 차 교육과정’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교육적 필요에 따라 ‘조절 과정안’이라 하여 부분적인 변화를 반영한 과정안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은 매년 약간씩 바뀌는데, 큰 변동이 없이 학년별 내용의 배치나 강조점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제의 변화나 정치·경제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교과목 구성이나 수업 시간 수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교육 강령을 집행하는 것은 모든 교육 기관과 교사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교원은 교육 강령에 기초하여 담당 과목의 교수안을 작성하고, 작성한 교수안은 집체적 협의를 거쳐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안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업 지도안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교수안을 ‘교수 요강에 제시된 교육 교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수 내용과 방법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수업을 진행하겠는가’를 규정한 교수자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라고 정의한다. 북한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교수안을 작성

하여 ‘시범상학’, ‘방식상학’이라고 불리는 교사들의 집단적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교수안에 대한 집단적 토론 과정에서는 수업 목적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교수 내용이 당 정책화되고 과학적으로 조직되었는지, 이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 노동을 결합하였는지,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 적절한지, ‘깨우쳐 주는 교수 방법’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교수안에 대한 집단적 토론이 끝나면 각 교과목의 분과장이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고 이에 의거하여 각 교사들은 자신의 교수안을 수정한다. 이는 교수안의 공동 작성과 검열을 통해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식의 전달 과정을 전적으로 국가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3. 교과서 개발 체계와 교과서의 특성

북한에서는 당과 국가 기구가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사들의 수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 발행과 보급을 독점함으로써 교과서에 수록될 지식의 선정과정을 전적으로 통제한다. 북한에서 교과서 개발의 유일한 주체는 국가이므로, 모든 교과서가 남한의 국정 교과서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중앙 교육 행정 기관인 교육성 내의 보통 교육국과 출판국이 교과서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보통 교육국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지침을 결정하

고 집행하며, 출판국은 교과서 집필과 심의, 출판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 완료된 교과서는 중앙 교육 기관에서 결성한 비상설 심의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 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교과서 내용을 고칠 수 없도록 교육법 34조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2~6인 정도의 집단적 집필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간혹 교과서에 따라 1인이 단독 집필하는 경우도 있다. 집필진 이외에 해당 분야의 교육 실무자나 연구자 1인을 편집자로 두어 교과서 내용의 검토 및 수정, 보완 작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 학교 교과서의 출판은 교육 도서 출판사에서, 인쇄는 교육 도서 인쇄 공장에서 전담한다.


교과서 보급은 교육 행정 체계를 따라 이루어진다. 교육성의 교육 기자재 공급 관리국에서 교과서 및 기자재 보급 업무를 총괄하며, 이와 별도로 교육성 산하에 중앙 교육 훈련 출판물 공급사가 설치되어 있다. 지방의 군인민위원회 교육부 교육과에 군 교육 기자재 공급소가 설치되어 각 지역의 교과서와 교육 기자재 보급을 담당한다.

교과서는 한 권당 5원에서 20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나 경제난 이후에는 교과서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다.¹⁾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 의한 교과서 공급률은 50% 미만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선배가 사용했던 교과서를 물려받아 쓰거나 시장에서 교과서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과서 가격은 교과목과 시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보통 한 권 당 몇 백 원에서 천 원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지정된 교과서 인쇄 공장이 아닌 다른 인쇄 공장이나 개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교과서 판본을 제작, 인쇄해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한 학년, 한 교과에 한 종류의 교과서만을 발행하고 있다. 즉, 모든 소학교와 중학교 학

생들은 같은 종류의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예외적인 교과는 실습 교과로, 성별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교육 내용과 교과서가 차이가 난다. 또, 영재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제1중학교의 경우, 주요 과목의 교육 내용과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중학교와 다른 교과서를 사용한다.

교과서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가로 16cm, 세로 22.5cm 정도로 남한의 교과서보다 약간 작다. 지질과 인쇄 상태는 남한 교과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재생 갱지로 제작되었던 1990년대 후반의 교과서보다는 개선되었다.

북한 교과서 내용 구성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정치 사상 관련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교과서에서 본문을 시작하기 전의 머리말 부분에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굵은 글씨체로 인용하여 해당 교과를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수학은 중요한 기초 과학입니다. 수학을 모르고서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를 바로 풀어 낼 수 없습니다.”라는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잘해서 지도자에게 충직한 충성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과 내용의 구성 체계는 자연 과학 교과와 경우 남한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단위별 비중, 설명과 예시를 제시하는 방법, 구체적인 예시의 내용 등 세부적인 점에서는 차이를 지닌다. 

1) 북한의 시장에서 쌀 1kg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긴 시간 속에서 얻어 낸 값진 열매

글 황은주 ((주)미래엔컬처그룹 과장)

☐ '교과서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다

2008년 새해가 밝으면서 올해 이루어 가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이 '최고의 국어 교과서 개발'이었다. 이는 내가 지니고 있는 여러 타 이틀 중에서 올해만큼은 '미래엔 검정교과서팀 국어과 과장'이란 직함이 가장 힘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금까지 국정 교과서로 개발되었던 〈국어〉, 〈도덕〉, 〈국사〉 과목을 검정 교과서로 개발하게 되었다. 검정화란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제껏 모두가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했던 것이 학교마다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교과서의 모습이 각양각색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어〉 교과서는 출판 시장의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국어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또한 출판사의 학습 참고서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등의 문제들에서 해결의 열쇠

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서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편집자들에게 있어 '교과서 개발과 합격'은 그해 최대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목표를 위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달려야 할까를 고민하며 새해를 맞이했던 것 같다.

☐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하다

마음을 굳게 다잡고 본격적으로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이 과연 제7차 교육과정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름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어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 국어〉 두 권 체제였고, 〈국어〉는 문학과 읽기 영역을 위주로, 〈생활 국어〉는 듣기·말하기·쓰기·문법 영역을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와 〈생활 국어〉 모두 여섯 영역을 다루어야 하고, 각 단원별로 서로 연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새로 개발될 국어 교과서는 기



**교과서인데 개발하는 기간이
6~7개월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교과서가 개발된 후에 질적인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존의 〈국어〉, 〈생활 국어〉와는 기본 성격 자체를 달리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와 〈생활 국어〉는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교육과정에는 듣기 넷, 말하기 넷, 읽기 다섯, 쓰기 다섯, 문법 다섯, 문학 넷으로 각 영역별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 성취 기준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단원별 성격이나 영역 통합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틀을 짜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다. 영역 통합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성취 기준들을 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았다. 수십 번의 수정과 재배합의 과정을 통해 연관을 지닌 성취 기준들을 적절하게 묶어서 13개의 단원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하여 각 단원별로 성취 기준을 조합한 후에는 이들에게 어떤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 주된 성취 기준을 무엇으로 하여 영역을 통합하느냐에 따라 단원의 성격이 변하기 때문이었다. 16명이나 되는 집필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 단원들에 숨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과 동시에 진행했던 것이 이들이 살 집을 짓는 일이었다. 각 단원들을 어떤 집에 살게 할 것인가를 놓고 ‘교과서연구재단’을 들락거리며 외국의 교과서 체제를 분석하고, 아예 서점에 앉아 관련 서

적들을 훑어보고, 팀원들과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커다란 집을 지은 후에는 각 방들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놓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초 작업들을 하면서 새로 개발되는 교과서에 대해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을 때마다 신바람이 나기도 했었다.

☞ 원고를 검정 기준의 틀에 맞추다

발주된 원고의 메일이 들어올 때마다 설렌 마음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던 것 같다. 여러 차례에 거친 단원 집필 계획서를 통해 그 단원의 성격을 규정하고 원고를 집필하였음에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다. 편집진에서는 각 단원의 원고를 보면서 ‘검정 기준’과 ‘교육과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각 단원에 조합된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어 가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시켰는지, 내용 요소의 예를 활동으로 잘 구현하였는지 등을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그 단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항목들을 나열해 놓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단원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시작했다.

제재 선택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커다란 고민거리였다. 국어 교과서를 통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찾기 위해 여러 자료를 뒤적였으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작품을 찾기 어려웠다. 설령 작품을 찾았다 하더라도 작가 측면, 내용 측면, 성취 기준 측면, 다양성 측면 등에서 확인을 하고 나면 끝까지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성취 기준에 맞춰서 시를 쓰고 등단하는 것이 빠르겠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집필진 사이에서 오가기도 했는데, 다 이러한 제재 선정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 성취 기준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작품들이 선정될 것이라는 범주가 보이는 것도 있었으나, 대체 어떤 작품을 염두에 둔 성취 기준인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도 많았다. 합격 발표 이후 다른 출판사의 책들을 보게 되면 그 시기에 이러한 고민을 같이 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우리 책에 수록된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공감의 고딕임과 함께 미소를 띠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원고를 검정 기준이라는 틀에 맞추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모호하여 생기는 의문들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하였으나 답변이 올라오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답변 또한 명쾌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의 깊이가 더해갔다. 검정 시스템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자와 이를 주관하는 부서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원활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촉박함과 초조함을 묵묵하게 이겨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 작업에서 처

음으로 교과서 세계에 입문을 했던 당시 한 선생님이 '교과서는 수정한 횟수만큼 퀄리티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한 말을 떠올렸다. 이번 수정이 마지막이겠지 하고 작업을 했다가 또다시 수정하기 위해 제재를 바꾸고 그에 따른 활동을 바꾸고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더 나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 개발에 처음 참여하는 선생님들이나 후배들을 설득해 가면서 최선의 제재, 최적의 활동을 구현해 나갔다.

더위와 함께 초조함이 극에 달할 무렵,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수업 시수를 고려하고, 난이도를 조정하고, 단계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검토를 의뢰했던 현장 선생님들은 국어 교과서가 처음으로 검정화된다는 사실에 다양함을 기대하면서도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학습량이 많아서 교과서를 제대로 수업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학습량을 줄여야 하는 것은 최대의 과제였다. 이와 동시에 던져 놓기 식의 활동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화된 활동으로 다듬어 나가야 했다.

새로운 국어 교과서 개발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현장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검토를 하였다. 몇몇 지적들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데에서 비롯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장의 경험들에서 우러나온 값진 것들이었다. 이러한 지적들을 집필진과 다듬어 나가는 데 또 한 계절을 보냈나 보다.

1, 2학기 각각 〈국어〉와 〈생활 국어〉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출원 몇 달을 앞두고 몇몇 팀은 포기했다더라, 또 몇몇 팀은 소통의 문제로 와해됐다더라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네 권을 개발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 경험이 없는 출판사나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출판사에서 아예 포기하는 사태가 생긴 것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초조함이 심해지던 때에 이런 소식은 그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와해 소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점검 작업을 하면서 집필진과 편집진 모두 신경이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물론, 모두가 최상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것이지만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일관되지 않은 교과서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와해되었다는 소식은 씁쓸한 웃음을 짓고 넘기기에는 무언가 무거운 짐으로 남겨졌다.

☞ 긴긴 터널을 통과하다

주말이라는 개념 없이, 퇴근 시간의 감각 없이 생활하기를 몇 달이나 하였던가. 택시 기사 아저씨가 다른 곳은 불황인데 출판사는 무슨 일이 이렇게 많냐며 의아하게 물어보신 적이 있다. 콜이 들어오는 곳이 요새는 출판사뿐이라면서. 우리뿐 아니라 교과서 개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12월 초, 드디어 그간의 고민과 노력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교과서를 가슴에 품어볼 수 있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1년이 넘는 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휘릭휘릭 편집되어 감을 느꼈다.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 오랜 힘든 시간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사명감에서였다.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자부심, 이 나라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힘들수록 더 열의를 모으고 서로를 격려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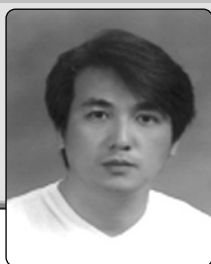
긴긴 터널을 통과한 우리는 간이역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멀리 보이는 빛을 쫓아 달려 온 쓴 안내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뜻있는 결과가 맺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8학년과 10학년 교과서 개발을 위해 몸도, 마음도, 팀의 분위기도 재정비하고 달릴 준비를 끝냈다. 이제 새 봄과 함께 한 마음으로 뭉쳐 또 긴 여행을 떠날 것이다. 내년 중학생들이 우리가 개발한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그려 보면서 또 씩씩이 달릴 것이다.

올해는 출원 시기가 11월이다. 작년에 비해 한 달이나 앞당겨졌는데, 발표는 한 달이나 늦춰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검정 교과서를 준비하는 시기가 과연 몇 달이나 될까. 고통스러운 시간이 짧아진다고 좋아해야 하는가. 아니다. 편집자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자신이 개발한 책이 미흡할 때 밀려드는 후회를. 이건 다른 아님 교과서인데 개발하는 기간이 6~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교과서가 개발된 후에 질적인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불과 며칠 전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받아볼 수 있었다. 교육과정 해설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학교 2학년은 1학년 것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한다 해도 고등학교는 기초부터 다시 접근해야 하는데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다. 숙성될 것은 충분히 숙성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을 벌려 놓기만 하고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지금부터 마음이 다급하다.

다음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에서는 이러한 소통과 시간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디지털 교과서, 그 신선한 경험



글 신동희 ((주)지학사 사장)

☐ '디지털 교과서'가 뭐예요?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질문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나 자신도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다.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도대체 뭘까?

'디지털 교과서'는 말 그대로 '디지털화된 교과서'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은 '학교와 가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기존의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용어 사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 현실 등의 멀티미디어와 통합 제공하며, 다양한 상호 작용 기능과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된 학생용의 주된 교재'이다.

곧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 데이

터를 이용하여 전자 매체에 수록한 뒤 유·무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교과서를 말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참고서, 문제집, 학습 사전 등 방대한 학습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또, 문서 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 현실, 하이퍼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각 기관의 학습 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폭넓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 기능, 노트 기능, 밑줄 기능도 있으며,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진도 관리,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만으로도 자신의 적성과 수준에 맞춘 개별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개발된 디지털 교과서의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교수 학습 기능	자원 연계 기능	상호 작용 기능	학습 관리 기능	교수 학습 보조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 · 학습 내용 제시 · 학습 자료 제시 · 교수 학습 방법 제시 · 평가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퍼링크 · 자료 탐색 및 색인 · 외부 자원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와 콘텐츠 · 학습자와 학습자 · 학습자와 교수자 · 학습자와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진도 관리 · 평가 및 성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작성 및 편집 · 그래픽, 작곡 등 · 페이지 이동 보기 · 각종 사전 · 도구형 소프트웨어

서책형 교과서의 장점을 수용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한 수업은 전자 칠판과 학생 개인용 학습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교과 내 학년 간, 타 교과 연계 학습 등 통합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등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까지의 서책형 교과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초·중등 학교의 교수·학습 체제 전반을 혁신하는 도구인 셈이다.

☐ 디지털 교과서와의 인연, 그 험난한 시간 속으로

지난 2007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을 통해 미래 교육 환경에 적합한 고품질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 교과서 추진 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2011년까지 디지털 교과서 시범 개발과 개발된 제품의 연구 학교 효과성 검증을 통해 2012년 이후 상용화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2007년 5월 14일, 디지털 교과서 원형(Prototype) 시범 개발 제안 설명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디지털 교과서 작업은 시작되었다. 그때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과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체감하지 못했었다. 자사에 부여된 과제는 제1과제인 국어, 과학, 미술의 3개 교과였다. 촉박한 시일 동안 철야 작업을 하며 디지털 교과서 원형(Prototype) 시범 개발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얼마 후 디지털 교과서 원형(Prototype) 시범 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였다. 원형 콘텐츠 개발 작업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여름 휴가’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와 맞물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교과서 콘텐츠 개발 주체가 교육 출판 업계인 관계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는 없었지만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 교과서 콘텐츠 개발에 주력을 했다. 교과 전문가, 교수·설계 전문가, 개발 전문가 등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9개 과목을 3개 과제로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업체는 9월까지 원형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해 10월에 디지털 교과서 원형 시범 개발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원형 건은 일단락되었다.

그해 12월 말에 디지털 교과서 5학년 시범 개발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디지털 교과서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되었다. 다음 해인 2008년 1월 14일, 디지털 교과서 5학년 시범 개발 국어 교과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몸이 찢릿해짐을 느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가슴 뭉클한 감동이 되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가슴 벅찬 설렘이 내 가슴 속에서 다시 되살아남을 느꼈다. 우리 팀은 앞으로 개발해야 할 산더미 같은 과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반가움과 기쁨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본 개발의 과정은 너무도 험난하고 고단한 가시밭길이었다.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은 교과 교육과정 에 대한 충분한 이해, 많은 시간과 노력, 끊임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후한 점수를 받을 때면 그것들이 보람으로 다가왔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어김없이 긴 슬럼프에서 허우적거리며 허겁지겁 뒤따라가는 형국이었다. ‘보람’과 ‘슬럼프’의 반복이 나를 지탱해 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세상일 모두가 그러하듯이 부침의 연속이었지



교과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학교이고, 선생님이며, 또한 꿈이고 희망이다.

앞으로의 미래를 마음껏 펼치고 열어볼 수 있는

빛이고 소망인 것이다.



만 슬럼프가 있기에 뒤에 느끼는 보람과 희열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박박하고 살인적인 일정상, 개발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교과목 개발 책임자들과 협의회를 잇달아 열며 조금씩 부딪치기도 했다. 학습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영역에의 충고는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모든 것이 난제였지만 여러 차례의 협의회를 거치며 서로의 이해를 구하고,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긍정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2008년 7월에 디지털 교과서 5학년 국어 교과 시범 개발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가 싶더니 연이어 7월 29일 디지털 교과서 6학년 콘텐츠 시범 개발 제안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치의 여유도 없이 업무는 연결이 되었고, 2009년 2월 디지털 교과서 6학년 국어 교과 콘텐츠 시범 개발 최종 보고회와 3월의 콘텐츠 시범 개발 최종 산출물 제출을 끝으로 아쉬움과 함께 짧고도 긴 여정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후딱 지나갔지만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고, 일에 대한 열정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음

을 확인시켜 준 짜릿한 시간이었으며, 서책형 교과서 편집과는 차별화된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 준 고마운 시간들이었다.

☞ 미래 교육,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와 사이버 가정 학습 등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첨단 e-러닝 학습 환경은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 학습(www.edunet4u.net)은 서비스에 가입한 300만 명의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 연계한 151종 약 9500여 편의 수준별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직 교사로 구성된 약 6만 명의 사이버 선생님을 통해 학습 관리를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학습자의 보충 학습을 돕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사이버 가정 학습을 통해 약 1조 1800억 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수준별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교과서로 지난해 초등학교 5, 6학년 과목을 개발해 20개 연구 학교에 적용했다. 정부는 올해 총 112개 학교에 첨단 e-러닝 학습 환경을 구축

해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한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찬반양론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디지털 교과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육 환경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러닝의 초기 단계로 디지털 교과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일종의 스마트 플레یس로 발전해야 한다.

둘째, 교육 장비이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장비는 태블릿 PC이다. 디지털 교과서에는 스타일러스 펜으로 직접 입력하는 기능이 들어 있다. 콘텐츠 자체에 태블릿 PC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위한 부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태블릿 PC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의 대부분을 이것을 구입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기 개당 단가를 낮추겠다는 입장이고, 업체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교육 내용, 즉 콘텐츠이다.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내용임과 동시에 콘텐츠가 된다. 교과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디지털이라는 장점을 살려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수 설계이다. 전통적인 교실 수업과 이러닝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교수 설계 전략이 개발되고 적용되듯이 디지털 교과서에도 고유의 교수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교수 설계는 단순히 디지털 교과서를 구성하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 수업 전체’를 놓고 보아야 한다. 서책형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와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의 피드백, 상호 작용, 전달 전략 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영역이 나름대로의 고유 영역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교수·학습 체제의 디지털 교과서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와 혁신의 21세기이다. 시대가 바뀔 만큼 교육 환경도 눈부시게 달라졌으며, 인터넷과 각종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혁신적이고도 효과적인 학습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발 빠르게 예측하고 주도함으로써 좀더 선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확장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교과서인 셈이다.

교과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학교이고, 선생님이며, 또한 꿈이고 희망이다. 앞으로의 미래를 마음껏 펼치고 열어볼 수 있는 빛이고 소망인 것이다.

지난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고 디지털 교과서 개발자로 참여하면서 쏟은 많은 열정과 시간이 우리나라 미래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디지털 교과서라는 시범 개발의 완성을 개발했다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나의 제언



글 이경환 (한국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

교육과정 중심으로 편수 행정을 되살려야 한다

1.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을 기르려 하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 교육의 기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을 기르려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요?

기본적인 질문인지, 모호한 질문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만, 물론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 해 보고자 질문을 던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보통 교육이라 하는 초·중등 교육이 ‘방향도 없이 헤매고 있는 배’처럼 이리 저리 휩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서 교과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을 반갑게 만났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옛날에는 교육법에 흥익인간의 이념 아래 각 급 학교의 교육 목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어디 갔는지 교육의 방향이 없어 큰일이야.”라는 걱정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그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인간상이 교육 현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떻

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한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자율 재량의 권한이 학교에 주어져 있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려면, 나라에서는 또 지역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이고,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는 학교 교육의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과 각 급 학교의 교육 중점, 교육 목적도 이 교육과정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각 급 학교에서는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도 교육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이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기를 것인가”라는 교육과정 행정은 바로 한 나라의 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 내용

기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교육의 질을 바르게 관리하고, 개선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에 관한 기준’(교육과정) 설정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정책을 다루는 전문적인 인력과 관련 부서를 확대, 보강하고 있습니다.

2. 교과서를 보는 눈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

우리는 흔히 ‘교과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획일적이고, 딱딱하고, 틀림이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즈음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매우 큰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가 어렵고 재미없다.’, ‘학습 분량이 너무 많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구나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 신문에는 으레 ‘무슨 교과서에 오자, 탈자 등 오류가 많다.’, ‘잘못된 표현이 많다.’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해당 교과과목의 담당자도 제대로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장관이 답변해야하는 곤혹을 치루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과서에는 과거처럼 단순하고 평면적인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 종합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지식을 찾고,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 보는 활동 중심의 지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즈음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지식을 많이 외우도록 잘 설명해 주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고력, 창의력, 비판력, 판단력 등 고등 정신 기능을 가지고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담겨져 있는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정신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만들어집니다. 교육과정에는 어떤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지, 초·중등 학교 급별로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은 무엇인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과 같은 각 교과별로 교과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에 대한 것이 교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좋은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고 편찬하는 전문적인 편수 담당자가 있는 것이고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과거 어른들이 배웠던 관점에서 생각하던 교과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 몇 장 밖에 없는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가 뭐 이런가?’, ‘아니 이걸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인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교육 수요자의 다양성, 개별성,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교과서’, ‘토론 중심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까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려고 해도 오랜 경험을 지닌 전문 편수 인력이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요? 만약 교육 내용 행정이 중시되지 않는 조직이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편수 행정이 교육과정 중심 체제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 기구가 개편, 조정될 때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여야 할 본질적인 업무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육부의 기구 개편, 조정의 역사는 '교육과정 정책'을 기획하고 개선하는 교육 전문직의 축소 조정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고, 또 영어 교과와 수업 시간 수를 증배한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면 교과목이나 수업 시간 수를 더 늘인다고 해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교사나 학부모 또는 각종 단체에서는 '교과목 수가 많다', '수업 시간 수가 너무 많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중하다'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순입니까?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뀌었다는 핑계로 톡 하면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을 멋대로 바꾸어도 되는 것입니까? 특히, 특정 단체가 교육에 가할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이나 편향된 교화, 선전 등을 방지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어 교과와 교육과정을 바꾸는데 교육과정 담당 부서에 '영어 담당 편수관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음악 교과 담당자 혼자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와 체육 예술 계열의 전문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선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초 중등 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며,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 중등 교육법 제 23조에 이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각 급 학교 교육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의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 행정, 교육 법규, 교육 재정 예산 투자, 교원 양성 연수 수급, 인력 개발, 입시 제도, 교육 시설 설비 등과 같은 일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공부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지원 관리 기능입니다. 이러한 교육 기능들에 대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인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문부성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조직과 기구가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교육을 되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국민성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행정'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야 할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적인 국가 교육과정 정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 단체의 기초 연구 기능과 혼동하거나 이용하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민간의 연구 기관은 국가의 교육과정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단지 국가의 교육과정 정책 결정을 도와 주는 기초적인 연구 기능을 담당할 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본질적인 업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교육과정 중심 체제로 하루빨리 확대,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입니다. 그 교육의 기본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살리고 국제 경쟁력에 이겨 나가기 위해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편수 행정을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던 일들이 되새겨 보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편수 행정과 장학 행정이 고도로 숙련된 교육 전문가에 의해 바르게 이루어지고 강화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연**

나의 제언



교육과정 개정 체제와 학교 교육

글 박 줄 (마산용마고등학교 교감)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주된 교육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해석서를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각 학교별로 마련한 당해 학교의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이며, 그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하여야 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 프로그램이고, 특색 있는 교육 설계도이며, 상세한 교육 운영 세부 시행 계획이다.

또, 각 학교별로 매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본 방향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고, 교육청의 실천 중심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학교의 여건, 지역의 특수성,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는 하지

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즉, 학교 교육과정 작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나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어찌면 교육 수요자의 요구나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여건이나 특수성보다 중요한 반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나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단위 학교의 교육 활동 계획 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육과정 개정 체제가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정 체제 전환과 이에 따른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제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이 초·중등학교의 모든 학교급별 교과별 교육과정을 몇 년 간격으로 주기적 일시적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개정 방식은 국가 교육 목표 실현의 용이성, 국가 차원의 질 높은 교육과정의 설계,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 관리, 교사와 학생의 지역 이동의 용이성(허정철, 2003.)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방식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론이나 각론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과에 따라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론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제히 교과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지는 문제점이 많

은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부분이나 전체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2002년 12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정 체제를 '일괄 개편 전면 수정'에서 '상시 개편 수시 개정'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주장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한 민주당의 인수위가 2003년 1월 교육과 관련된 부분 중의 한 요소로서 현행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핵심적 문제가 되었다(허정철, 2003.). 따라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는 일시 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과 관련 부처의 요구를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3년 10월부터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의 도입으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정(2004. 11. 26.), 공고 21 체제 및 국사 교육과정 개정(2005. 12. 28.), 수학 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2006. 8. 29.), 초 중등 학교 교육과정 개정(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7. 2. 28.), 초 중등 학교 교육과정 개정(보건 교육과정 도입, 2008. 9. 11.), 초 중등 학교 교육과정 개정(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2009. 3. 6.)이 이루어졌다.

이는 교육과정 개정 체제의 전환 이후 매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개정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수정되어 일선 학교에 안내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매년 수정되는 교육과정 기준이나 지침 때문에 중 장기적인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수준별 교육과정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하여 2006년 8월에

수학과 영어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그러나 6개월 후인 2007년 2월에 제7차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개정하고, 개정된 수학과 영어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단 6개월 만에 교육과정이 2번이나 개정된 것이다. 또, 개정된 수학과 영어 교육과정은 2009년 초 중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초등학교 1~2학년, 2010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2011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으로 적용된다. 즉, 수학과 영어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가 달라 많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수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총론의 적용은 2011년 1학년부터 적용되지만 수학과 영어 교과의 경우는 2009년 1학년부터 적용되어 2010~2011년 2년간은 수학과 영어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수학과 영어 교과는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구분이 없어져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되고, 과목명과 과목별 이수 단위, 이수 단위 수 증감 범위 등이 다른 교과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리 영역의 시험 과목 또한 변경되어 일선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수학과 영어의 개정 교육과정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지 자문하고 싶다.

2008년 9월에 개정 고시된 초 중등 학교 교육과정은 보건 교육과정 도입을 주된 목적으로 아직 시행도 해 보지 못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또 개정한 것이다. 보건 교육과정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학교 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법률 제8678호, 2007. 12. 14.)에 따른 보건 교육의 체계적 실시 조항의 신설에 따른 조치인 것이다. 다만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관계

자가 교육과정 개정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 체제가 전환되지 못했다면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보건 교육과정을 도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개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보건 교육과정은 고시 5개월 후인 2009년 3월부터 모든 초·중등 학교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학교 적용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교과서 개발, 개발된 교과서 실험 적용 등을 위하여 2~3년 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경우는 무엇이 그렇게 시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빠른 조치에 놀랄 뿐이다.

3.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각각 17시간 이상의 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나. 2010년 3월 1일부터 중학교에서 재량 활동 선택 과목으로 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선택 과목(교양 과목군)에 보건 과목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라.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중학교 1~3학년 중 1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위의 내용은 개정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보건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 중에서 ‘나~라’를 ‘나. 2010년 3월 1일부터 중학교에서 재량 활동 선택 과목에 보건 과목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 2011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선택 과목(교양 과목군)에 보건 과목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라. 2009년 3

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중학교 1~3학년, 2009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라고 개정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보건 교육과정에 대해 시·도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교원이나 시설, 각종 교육 자료 등과 같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단위 학교에 가장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재량 활동의 취지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적용을 위해 좀 더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2009년 3월에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중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일반 사회 영역의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2011~2012년에 적용할 내용인지라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 문제는 없었는지 생각해 볼 요소가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용 전에 올바르게 수정한 것이라면 교육과정 개정 체제의 전환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제 개정과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의 제 개정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보건 교육과정의 근거가 학교 보건법에 있는 것과 같이 이른바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조직을 대통령 직속이나, 아니면 과거의 편수국 수준 정도를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마련해야 한다. 매년 개정해야 할 정도로 약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가 수준의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

우리나라는 교과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오히려 혼란스럽다.

그냥 '지리' 라고 하면 될 것을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등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준다는 사유가 언제나 제시되곤 한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축은 교과목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의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고시는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한 법률적 행위에 속하며,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추진된다. 2009년부터 적용되는 보건 교육과정 도입은 초·중등 교육법이나 대통령령이 아닌 학교 보건법의 제9조의2와 제15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어 교육과정, 사회 교육과정, 수학 교육과정, 등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굳이 근거를 찾는다면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일 것이다.

둘째, 교과목의 통합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과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오히려 혼란스럽다. 그냥 '지리' 라고 하면 될 것을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등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준다는 사유가 언제나 제시되곤 한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축은 교과목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교육 활동 중에서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일 것이다. 이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과 관련한 국가 수준의 기준이 곧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교육청의 지침을 근거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주요 교육 활동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일시적 전면적 개정이든, 수시적 부분적 개정이든 개정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교나 학생들에게 혼란이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된 교육과정 제 개정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한 관계자의 고민이 요청된다. **연**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27)

양태희

-(주)비유와상징 CVP-



① (주)비유와상징의 중 고 등 교재(학습서)는 매출은 물론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면에서 2위권 업체들과 큰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탄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과서, 수학 능력 시험 학습서 시장에 적극 뛰어들며 최근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비유와 상징 교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을 학습 교재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죠. 특히, ‘수능완자’ ‘수능 아우라’로 수능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수능 교재의 다양한 발간을 통해 대입 시장에서도 비상이라는 브랜드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8년에는 중등 영어, 수학 교과서가 합격하면서, 본격적으로 교과서 발행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전 과목 교과서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은 ‘비유와상징(이하 비상)’이 창립 11주년을 맞은 해입니다(‘한끝’ 발행 연도를 창립 연도로 삼고 있음.).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을 채웠으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신발 끈을 조일 시기죠.

우리는 2004년부터 매년 40%가 넘는 고공 성장을 해 왔습니다. 비상의 책들은 중 고등 내신 교재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요. ‘한끝’, ‘개념+유형’, ‘오투’, ‘내공의 힘’ 등이 그것입니다. 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전과목 완

② 최근 비유와상징의 공격적인 행보가 매섭습니다. 대표 사업인 교재 출판 부분 외에도 다양한 교육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비유와상징(이하 ‘비상’)은 ‘한 권으로 끝내기 국어’ 교재를 시작으로 ‘완자(완전한 자율 학습서)’, ‘오투’, ‘개념 플러스 유형’ 등 시장 선도 제품을 만드는 출판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2008년 비상의 영어, 수학 교과서 등은 검정에 통과해 수많은 학교에서 사용 중이죠.

더불어 자기 주도 학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초 중등 온라인 교육 사이트 ‘수박

씨닷컴'과 고등 온라인 교육 사이트 '비상에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중등 대상 독서/토론/논술 전문 학원인 '세상을 바꾸는 힘', 중등 프랜차이즈 학원 '비상아이비즈', 대입 재수 학원 '비상에듀학원', 학력 평가 전문 업체 '비상교평'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를 앞서가는 진정한 교육 전문 그룹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③ 비유와상징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교재 시장을 석권하게 됐습니까?

1990년대 중반 학원 강사로 활동하던 당시, 국내 학원 시장은 '산업'이라 불릴 만큼 급속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학원용 교재나 학습서는 전무한 상태였죠. 출판사 어느 곳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교육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기존 출판 관행을 답습하고 있었어요. 또, 지역별로 교사 및 강사에 따른 학습의 질적 차이가 학업 성취도의 지역 편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국내 교육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나타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보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바로 강사로 활동하며 가장 필요했던 강사용(학원용) 교재를 만드는 비유와상징을 설립(1998년)한 거죠.

단 하나의 학습서라라도 그 동안 경험하고 아쉬웠던 부분, 타 강사들의 개선 의견을 모두 반영해 완벽한 교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디자인과 교재명도 소비자의 감성에 어필할 수 있도록 감성과 꿈을 담은 패션을 추구했죠.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된 제품은 출시 1년 만에 국어 학습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권으로 끝내기(한끝) 국

어' 교재입니다.

그동안 강의용 교재에 목말라 있던 학원 시장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고, 타 출판사들의 학원용 교재 출간을 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죠. '한끝'은 업계 최초로 최단 기간 내에 1000만 권 판매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며 명실공히 브랜드 선호도 1위 제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05년 비상은 또 한 번 승리의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학원 탈출, 학습 독립,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 아래 학습서 '완자(완벽한 자율 학습서)'를 출간해 자율 학습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 거죠. 당시 비상은 조사를 통하여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독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나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것에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기업의 미션인 '자기 주도 학습'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완벽한 자율 학습이 가능한 학습서 '완자 시리즈' 브랜드를 개발, 제품을 내놔요. 결과는 100% 대만족! 교과서 대신 자율 학습서 '완자'를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속속 늘면서 '완자'는 학습서 부문 최다 시장 점유율 기록 및 초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④ 일반 교재 출판 회사에서 교육계 선도 기업으로 '비상'한 과정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혁신 활동으로 대한민국 교육 문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가장 영향력있는 기업이 된다."

비상의 사명입니다. 비상이 교육 브랜드 선호도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등 교육업계 다방면에서 1위를 고수할 수 있는 데에는 굳건한 의지와 교육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완벽한

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표지 같이’ 등 출판 관행을 없애기 위해 반품, 재고 품목을 전량 폐기합니다. 그리고 매학기 새롭게 개선본을 만들어 이윤보다 품질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중등 대상의 온라인 교육 사업인 ‘수박씨닷컴’ 운영을 시작했구요. 본격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 문화 선도’라는 기업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학습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비상은 사업이 안정궤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낌없이 해 왔고, 그 결과 현재 ‘수박씨닷컴’은 중등 온라인 교육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등 치열한 중등 온라인 시장 안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비상 교재 독점 강의, 차별화된 특목고 대비 강좌 등 향후 초·중·고부터 수능까지 망라하는 온라인 교육 포털 사이트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비상은 사설 모의 고사 기관인 ‘진학 에듀’를 인수하고, 강남, 강북, 노량진 등에 고등 입시 전문 오프라인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또, 고등 대상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 ‘비상에듀’를 세웠습니다. 고등 입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에듀는 각 영역 대표 강사를 대거 영입하며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확한 입시 정보 및 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의 고사 평가 기관을 세워 삼각 구도의 최고의 시너지를 낼 전망입니다.

⑤ 교과서 사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교육 출판 시장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시장, 특히 교과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교과

서 개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기’, ‘완자’, ‘오투’, ‘개념+유형’ 등과 같이 질적 완성도를 인정받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교재 개발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개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8년 처음으로 중등 수학, 영어 교과서를 내놓고,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수학 교과서는 전국 채택률 1위(17%)를 기록해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상 교과서는 올해 국어, 사회, 과학, 한문 등의 과목을 추가로 내놓고 6월 검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⑥ 비상에서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결과 학습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능력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되는 책이 최적의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⑦ 비상 교과서의 장점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올해 교과서 최종 검정 결과는 6월에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회사는 과목별 채택률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능력과 창의력 향상에 적합하고, 현장을 충실히 반영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국민 공통 기본 과목 중심으로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으나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교과서 전문 출판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㉔ 비유와상징에는 ‘행복한 공부 연구소’라는 독특한 독립 조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복한 공부 연구소’는 연구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교수법과 과학적인 학습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비상학의 핵심 조직이죠. 다른 교육 업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직으로, 연구소라는 독립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교육 연구에 매진하고 있어요. 작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 환경을 지향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죠.

㉕ 비상은 독특한 기업 문화로 유명한데요. 소개할 만한 기업 문화와 기업 운영 철학이 있다면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동일한 지위의 기획자”

비상학이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수하는 수평 조직 체제의 원칙입니다. 타 기업과 달리 비상학의 내부 조직을 들여다보면 서클(circle, 원)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조직의 최종 책임자(CP)와 실무 기획인(CP)의 영문 이니셜을 동일하게 해 우리 관계의 수직적 관점을 없애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동료적 관계를 강화한 겁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의사 결정 단위를 최소화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죠.

비상학의 임직원들은 이런 조직 체제가 독특하지만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라고 여깁니다.

수직적 분위기의 ‘회의’의 명칭도 서로의 의견을 소통하고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의미에서 ‘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비상학의 제품력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는 바로 기업 문화에 대한 로열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조직과 조직원의 성장은 하나’라는 강력한 의지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제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 그룹웨어, 부서 책임자 회의, 전사원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교육 훈련 계획 및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근무 시간 내 학습 인정, 학점 이수제, 온라인 교육 지원, 역량 진단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누구든지 자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원의 빠른 적응을 위한 멘토링을 접목한 OJT 리더 제도 등도 있다.

자기 계발 문화 구축의 결실로 비유와상징은 ‘Best HRD 선정’, ‘전국 경영 성과 경진 대회 대상(노동부 장관상)’, ‘대한민국 경영 대상 인재 경영 부문(능률협회) 최우수상’,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국무총리상’ 등 각계 각층에서 선정한 인적 자원 개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비상학은 영역별 사업을 융합해 진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교육 브랜드 가치 1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문화 그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

■ **대답** / 김종일(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무국장)

초·중등 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4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에 의거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제2007-79호, '07. 2. 28.)에 따른 초·중등 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수정 고시(제2008-147호, '08. 8. 28.)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9년 1 월21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1. 초·중등학교(※ '08.8.28 고시와 내용 동일)

구분		국정 도서	검정 도서
교과	바른 생활	○ 교과서: 바른 생활 1-1, 1-2/2-1, 2-2 생활의 길잡이 1-1, 1-2/2-1, 2-2 ○ 지도서: 바른 생활 1-1, 1-2/2-1, 2-2 【12책】	
	슬기로운 생활	○ 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1-1, 1-2/2-1, 2-2 ○ 지도서: 슬기로운 생활 1-1, 1-2/2-1, 2-2 【8책】	
	즐거운 생활	○ 교과서: 즐거운 생활 1-1, 1-2/2-1, 2-2 ○ 지도서: 즐거운 생활 1-1, 1-2/2-1, 2-2 【8책】 ○ 교사용 전자 저작물(CD) 4종	
	국어	○ 교과서: 듣기 말하기 1-1, 1-2/2-1, 2-2/3-1, 3-2 읽기 1-1, 1-2/2-1, 2-2/3-1, 3-2/4-1, 4-2/5-1, 5-2/6-1, 6-2 쓰기 1-1, 1-2/2-1, 2-2/3-1, 3-2 듣기 말하기 쓰기 4-1, 4-2/5-1, 5-2/6-1, 6-2 ○ 지도서: 국어1-1, 1-2/2-1, 2-2/3-1, 3-2/4-1, 4-2/5-1, 5-2/6-1, 6-2 【42책】 ○ 교사용 전자 저작물(CD) 12종	
	도덕	○ 교과서: 도덕 3-1, 3-2/4-1, 4-2/5/6 생활의 길잡이 3-1, 3-2/4-1, 4-2/5/6 ○ 지도서: 도덕3-1, 3-2/4-1, 4-2/5/6 【18책】	
		○ 교과서: 사회 3-1, 3-2/4-1, 4-2/5-1, 5-2/6-1, 6-2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사회	사회탐구 4-2/5-1, 5-2/6-1, 6-2 사회과 부도 4~6(합본) ○ 지도서: 사회 3-1, 3-2/4-1, 4-2/5-1, 5-2/6-1, 6-2 【22책】	
수학	○ 교과서: 수학 1-1, 1-2/2-1, 2-2/3-1, 3-2/4-1, 4-2/5-1, 5-2/6-1, 6-2 수학 익힘책 1-1, 1-2/2-1, 2-2/3-1, 3-2/4-1, 4-2/5-1, 5-2/6-1, 6-2 ○ 지도서: 수학1-1, 1-2/2-1, 2-2/3-1, 3-2/4-1, 4-2/5-1, 5-2/6-1, 6-2 【36책】	
과학	○ 교과서: 과학 3-1, 3-2/4-1, 4-2/5-1, 5-2/6-1, 6-2 실험 관찰 3-1, 3-2/4-1, 4-2/5-1, 5-2/6-1, 6-2 지도서: 과학 3-1, 3-2/4-1, 4-2/5-1, 5-2/6-1, 6-2 【24책】 ○ 교사용 전자 저작물(CD) 8종	
실과		○ 교과서: 실과 5/6 ○ 지도서: 실과 5/6 【4책】
체육	○ 교과서: 체육 3/4 ○ 지도서: 체육 3/4 【4책】	○ 교과서: 체육 5/6 ○ 지도서: 체육 5/6 【4책】
음악	○ 교과서: 음악 3/4 ○ 지도서: 음악 3/4 ○ 교사용 음원 자료 2종 【4책】	○ 교과서: 음악 5/6 ○ 지도서(음원 자료 포함) 음악 5/6 【4책】
미술	○ 교과서: 미술 3~4(합본) ○ 지도서: 미술 3~4(합본) 【2책】	○ 교과서: 미술 5~6(합본) ○ 지도서: 미술 5~6(합본) 【2책】
외국어 (영어)		○ 교과서: 영어 3/4/5/6 【4책】 ○ 학생용 전자 저작물(CD) 4종 ○ 지도서: 영어 3/4/5/6 【4책】
특별 활동	○ 지도서: 자치 활동/적응 활동/계발 활동/봉사 활동/행사 활동 【5책】 ○ 교사용 전자 저작물(CD) 5종	
총 계	교과서 117책 지도서 68책, 전자 저작물 27종, 음원 자료 2종	교과서 11책, 전자 저작물 4종 지도서 11책

※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우리들은 1학년, 사회과탐구 등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거 시 도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교과용도서(이하 “교육청 심의 인정 도서”라 함)임.

2. 중학교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교과	국어	○ 교과서 국어 1-1, 1-2, 2-1, 2-2, 3-1, 3-2 생활 국어 1-1, 1-2, 2-1, 2-2, 3-1, 3-2 【12책】	
	도덕	○ 교과서 도덕 1, 2, 3 【3책】	
	사회	○ 교과서 사회 1, 3/사회과 부도 역사(상), (하)/역사 부도 【6책】	
	수학	○ 교과서 수학 1, 2, 3 수학 익힘책 1, 2, 3 【6책】	○ 지도서 수학 1, 2, 3 【3책】
	과학	○ 교과서 과학 1, 2, 3 【3책】	○ 지도서 과학 1, 2, 3 【3책】
	기술 가정	○ 교과서 기술 가정 1, 2, 3 【3책】	○ 지도서 기술 가정 1, 2, 3 【3책】
	체육	○ 교과서 체육 1, 2, 3 【3책】	○ 지도서 체육 1, 2, 3 【3책】
	음악	○ 교과서 음악 1, 2, 3 【3책】	○ 지도서 음악 1, 2, 3 【3책】 ○ 교사용 음원 자료 3종
	미술	○ 교과서 미술 【1책】	○ 지도서 미술 【1책】
	외국어 (영어)	○ 교과서(듣기 자료 CD 포함) 영어 1, 2, 3, 영어 학습 활동책 1, 2, 3 【6책】	○ 지도서 영어 1, 2, 3 【3책】
	한문	○ 교과서 한문 1, 2, 3 【3책】	○ 지도서 한문 1, 2, 3 【3책】
	정보	○ 교과서 정보 1, 2, 3 【3책】	○ 지도서 정보 1, 2, 3 【3책】
	환경	○ 교과서 환경 【1책】	○ 지도서 환경 【1책】
	보건	○ 교과서 보건 【1책】	
	생활 외국어	○ 교과서 생활 독일어/생활 프랑스어/생활 스페인어/생활 러시아어/생활 아랍어 【5책】 ○ 학생용 듣기 자료 (CD) 5종	○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생활 중국어/생활 일본어 【2책】 ○ 지도서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2책】
특별 활동			
총 계	교과서 5책 듣기 자료 5종	교과서 56책	지도서 28책 교사용 음원 자료 3종

※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 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시 도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 도서임.

※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국어, 도덕, 사회, 특별 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 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 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3. 고등학교

【보통 교과】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국어		○ 교과서 국어(상), (하)/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상), (하)/매체 언어 【9책】	
도덕		○ 교과서 도덕/현대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전통 윤리 【4책】	
사회		○ 교과서 사회/역사/한국 지리/세계 지리/경제 지리/한국 문화사/세계 역사의 이해/동아시아사/법과 사회/정치/경제/ 사회 문화/지리 부도/역사 부도 【14책】	
수학		○ 교과서 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힘책/수학 I /수학 I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본/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수학 II /수학 II 익힘책/적분과 통계/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 【14책】	○ 지도서 수학 【1책】
과학		○ 교과서 과학/물리 I /화학 I /생명 과학 I /지구 과학 I /물리 II /화학 II / 생명 과학 II /지구 과학 II 【9책】	○ 지도서 과학 【1책】
기술 가정		○ 교과서 기술 가정/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가정 과학/창업과 경영/해양 과학/정보 【7책】	○ 지도서 기술 가정 【1책】
체육		○ 교과서 체육/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학 【4책】	○ 지도서 체육 【1책】
음악		○ 교과서 음악/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3책】	○ 지도서 음악 ○ 교사용 음원 자료 1종 【1책】
미술		○ 교과서 미술/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4책】	○ 지도서 미술 【1책】
외국어	○ 교과서 아랍 어 I /러시아 어 I 【2책】 ○ 학생용 듣기 자료 (CD) 2종	○ 교과서(듣기 자료 CD 포함) ※ 밑줄 친 도서는 CD 없음 영어/영어 학습 활동책/영어 I /영어 II /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독일어 I /독일어 II /프랑스 어 I /프랑스 어 II /스페인 어 I /스페인 어 II /중국어 I /중국어 II /일본어 I /일본어 II 【18책】	○ 교과서 아랍 어 II /러시아 어 II 【2책】 ○ 지도서 영어 【1책】
한문		○ 교과서 한문 I / 한문 II 【2책】	
교양	○ 교과서 안전과 건강 【1책】	○ 교과서 보건 【1책】	
특별 활동			
총 계	교과서 3책 듣기 자료 2종	교과서 89책	교과서 2책, 지도서 7책 교사용 음원 자료 1종

※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교양 과목 교과서 및 국어, 도덕, 사회, 역사,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 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 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전문 교과】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농생명 산업	○ 교과서 농업 이해/농업 기초 기술/농업 정보 관리/농업 경영/생물 공학 기초/재배 및 작물 생산 기술/술 과 인간/산림 자원 기술/원예 및 생활 원예/생산 자재/원예 기술 I II/동물 자원/사육 기술 I/사 육 기술 II/누에와 비단/조경/조경 기술 I II/농 업과 물/농촌과 농지 개발/농업 토목 기술 I/농업 토목 기술 II/농업 기계 공작/농업 기계 및 농업 기계 기술 I/농업 기계 기술 II/식품 과학/식품 위 생/식품 가공 기술 I II/농산물 유통/농산물 유통 관리 I/농산물 유통 관리 II/환경 보전/환경 관리 I/환경 관리 II/농업과 관광 【34책】		
공업	○ 교과서 기계 제도/토목 제도 및 설계/건축 설계 제도/디 자인 제도/선박 제도/기계 일반/전기 일반/공업 영어/기계 설계/기계 공작법/원동기/유체 기기/ 공기 조화 설비/기계 기초 공작/공작 기계 I II/ 산업 설비/금형 제작/전자 기계 이론/전자 기계 회로/전자 기계 공작/전자 기계 제어/금속 제조/ 재료 가공/주조/금속 처리(상)/금속 처리(하)/전기 응용/전기 회로/전기 기기/전력 설비 I/전력 설비 II/전기 전자 측정/자동화 설비/전자 기기/전자 전산 응용/전자 회로/계측 제어/통신 일반 및 시 스템/디지털 논리 회로/측량/역학/토목 일반/토 목 재료 시공/수리 토질/지적 전산 및 실무/건축 구조/건축 계획 일반/건축 시공 I II/디자인 일반 /색채 관리/조형/제품 디자인/공예/공업 화학/단 위 조작 공정 제어/제조 화학/분석 화학/기능성 세라믹/세라믹 원리 공정/구조 세라믹/세라믹 디 자인/발효 공업/식품 제조 기계/식품 분석/식품 공업 기술/섬유 재료/방직 방사/제포 봉제/염색 가공/인쇄 일반/인쇄 · 사진 재료/평판 인쇄/사 진 전자 제판/자동차 건설 기계/자동차 기관/자 동차 새시/자동차 전기 전자 제어/건설 기계 구조 정비/자동차 차체 수리/선박 이론/선박 구조/선 박 건조/항공기 일반/항공기 기체/항공기 기관/항 공기 장비/항공기 전자 장치/환경 공업 일반/수질 관리/대기 오염 방지/폐기물 처리/로봇 기초/로 봇 제작/재료 일반/건축 목공/시각 디자인/컴퓨터 게임 기획/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컴퓨터 게임 그 래픽/만화 · 애니메이션 기초/만화 창작/영화 · 방 송 제작/촬영 · 조명/방송 시스템 【104책】	○ 교과서 공업 입문/ 기초 제도/정 보 기술 기초 【3책】	○ 교과서 컴퓨터구조/시스템 프로그래 밍/프로그래밍/정보 통신/특 수 인쇄/사진/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제작 【8책】
산업 정보	○ 교과서 금융과 생활/경영과 법 및 국제화와 기업 경영/전 자 무역과 국제 상무/유통 정보 및 물류 관리 【4책】	○ 교과서 상업 경제/회계 원리/컴 퓨터 일반/원가 회계/세 무 회계/무역 영어/기업 과 경영/기업 자원 관리/ 전자 상거래 일반/창업 일반/멀티미디어 일반 【11책】	○ 교과서 전산 회계/자료 처리/프로그 래밍 실무/소프트웨어 개발/ 사무 관리 실무/멀티미디어 기 획/멀티미디어 실무/웹 프로 그래밍/인터넷 쇼핑몰 관리/ 전자 상거래 실무/인터넷 마케 팅/기업 회계/마케팅과 광고/ 경영 정보 시스템/커뮤니케이 션 실무 【15책】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수산 해운	○ 교과서 수산 일반/해사 일반/해양 일반/수산 해운 정보 처리/수산 생물/수산 경영 일반/해양 생산 기술 (상)/해양 생산 기술(하)/수산 양식(상)/수산 양식 (하)/양식 생물 질병/수산 가공(상)/수산 가공(하)/ 수산물 유통/해양 환경 및 해양 오염/냉동 일반/ 냉동 기계/냉동 공조 실무/열기관/선박 보조 기계 /선박 전기 전자/기계 설계·공작/잠수 기술/항 해/선박 운용/해사 법규/해사 영어/선화 운용/전 자 통신 공학/전자 통신 기기/전자 통신 운용/해 양 레저·관광/항만 물류 일반/해양 정보 관리 【34책】		○ 교과서 생선회 실무 【1책】
가사 실업	○ 교과서 인간 발달/식품과 영양/급식 관리/한국 조리/동 서양 조리/의복 재료 관리/패션 디자인/한국 서 양 의복 구성/자수와 편물/주거/실내 디자인/가구 디자인/디스플레이/영 유아 교육 원리/영 유아 교육 프로그램/영 유아 놀이 교육/영 유아 생활 지도/관광 일반/관광 서비스 실무/관광 외식 조리 /관광 영어/관광 일본어/관광 중국어/간호의 기초 및 보건 간호/기초 간호 임상 실무/기초 복지 서 비스/노인 생활 지원/공중 보건 【28책】		○ 교과서 제과 제빵/관광 경영 실무/해 어 미용/피부 관리/메이크업 【5책】
과학			○ 교과서 물리 실험/화학 실험/생명 과 학 실험/지구 과학 실험/과학 사/전자 과학/정보 과학Ⅰ/정 보 과학Ⅱ/고급 수학/고급 물 리/고급 화학/고급 생명 과학/ 고급 지구 과학/환경 과학/현 대 과학과 기술 【15책】
체육	○ 교과서 스포츠 개론/스포츠 경기 과학/체육과 진로 탐구/ 육상 운동/체조 운동 【5책】		○ 교과서 수상 운동/개인 대인 운동/단 체 운동/투기 운동/빙상 설상 운동/표현 창작 운동/체력 운 동/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전 문 스포츠 경기 초급/전문 스 포츠 경기 중급/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스포츠 교육/코칭론/전 강 관리/스포츠 경영 행정 전 공 실기/전공 실습 【18책】
예술			○ 교과서 시창 청음/합창/합주/컴퓨터 와 음악/ 소묘/기초 회화/기초 디자인 공예/영상 매체와 미 술/미술 감상과 비평/무용 감 상과 비평/문장론/고전 문학 의 감상과 비평/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시창작/소설 창 작/희곡 창작/매체와 문학/연 극 감상과 비평/영화 기술/영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화 창작과 표현/영화 감상과 비평/기초 촬영/중급 촬영/디지털 사진 촬영/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사진 감상과 비평/음악 이론/음악사 감상/미술 이론/미술사/무용의 이해/문학의 이해/연극의 이해/영화의 이해/사진의 이해 【35책】
외국어	○ 교과서 : 심화 영어/영어 청해/영어 회화 I/영어 독해/영어권 문화 I/기초 독일어/독일어 청해/독일어 회화 I/독일어 독해/독일어권 문화 I/기초 프랑스 어/프랑스 어 청해/프랑스 어 회화 I/프랑스 어 독해/프랑스 어권 문화 I/기초 스페인 어/스페인 어 청해/스페인 어 회화 I/스페인 어 독해/스페인 어권 문화 I/기초 중국어/중국어 청해/중국어 회화 /중국어 독해/중국 문화 I/기초 일본어/일본어 청해/일본어 회화 I/일본어 독해/일본 문화 I/기초 러시아 어/러시아 어 청해/러시아 어 회화 I/러시아 어 독해/러시아 문화 I/기초 아랍 어/아랍 어 청해/아랍 어 회화 I/아랍 어 독해/아랍 문화 I/ 【40책】		○ 교과서 영어 회화 II/영어 작문/영어권 문화 II/영어 문법/독일어 회화 II/독일어 작문/독일어권 문화 II/독일어 문법/프랑스 어 회화 II/프랑스 어 작문/프랑스 어권 문화 II/프랑스 어 문법/스페인 어 회화 II/스페인 어 작문/스페인 어권 문화 II/스페인 어 문법/중국어 회화 II/중국어 작문/중국 문화 II/중국어 문법/일본어 회화 II/일본어 작문/일본 문화 II/일본어 문법/러시아 어 회화 II/러시아 어 작문/러시아 문화 II/러시아 어 문법/아랍 어 회화 II/아랍 어 작문/아랍 문화 II/아랍 어 문법 【32책】
국제			○ 교과서 영어 강독/독일어 강독/프랑스 어 강독/스페인 어 강독/중국어 강독/일본어 강독/러시아 어 강독/아랍 어 강독/국제 정치 I /국제 정치 II /국제 경제 I /국제 경제 II /세계 문제/ 비교 문화 I /비교 문화 II /정보 과학/국제법/지역 이해/인류의 미래 사회/한국의 전통 문화/한국의 현대 사회/한국어/과제 연구 I /과제 연구 II /예능 실습 【25책】
총계	교과서 249책	교과서 14책	교과서 154책

- ※ 진한 색으로 표기된 과목: 국정 도서는 통합 개발 도서, 인정 도서는 기존의 국정 도서에서 인정 전환한 도서임.
 ※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 도서는 시 도 교육청 인정도서심의7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 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 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2009년도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 기간: 2009년 1월 1일 ~ 2009. 12월 31일

2. 보상 대상: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 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 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1만 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 기준	보상 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5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56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770원	
		1/4편 미만	2,270원	
음악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87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30원	
		1/4편 미만	1,440원	
미술 사진 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7,43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3,700원	
		1/4쪽 미만 크기	2,210원	

※ 최저 1만 부 이하는 1만 부로 하고, 1만 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교과용 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제7회 교과서 시립 수필 공모

우리 연구재단에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습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서의 기능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자 교과서를 소재로 한 수필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공모 개요

- 주제 : 교과서에 얹힌 체험, 추억, 소감 등으로 작품 제목은 자유임.
- 참가 자격 : 전국 초 중 고등 학교 재학생(초등 학생은 4학년 이상), 일반인
- 분량 및 작성 방법
 - 초 중 고등부: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초등부는 10매 내외), 자필로 작성
 - 일반부: A4용지 3매 내외, 머리말 30mm, 꼬리말 20mm, 좌우 여백 각 20mm, 제목 16포인트, 본문 12포인트, 줄 간격 160%
- 시상 내역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특별상
초 등 부	1편	1편	3편	5편	1명 (지도 교사)
중 등 부	1편	1편	3편	5편	
고 등 부	1편	1편	3편	5편	
일 반 부	1편	1편	3편	5편	
부상(천 원)	각 50	각 30	각 20		30

- 금상: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상
- 은상: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상
- 동상, 장려상: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상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 기간 : 2009. 6. 15. ~ 6. 15. (우편 접수 시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 접 수 처 : (우)137-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수필 공모 담당자 앞

입상자 발표

- 2009. 8. 27.(목),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 (www.ktrf.re.kr) 게재

기타 사항

- 응모자는 반드시 참가 신청서(홈페이지 공지 사항 다운로드)를 제출해야 하며, 작품 원고에는 개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말 것.
- 입상 작품이 타 기관에서 입상된 작품이거나 유사 작품 또는 표절 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함.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귀속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필 공모 담당자(02-2651-19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KTRF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후 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한국검정교과서, (주)금성출판사, 두산동아(주), (주)미래엔컬처그룹,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연구재단 소식

※ 사무실 이전

- …우리 연구재단은 2009년 4월 9일 서초구 반포동 재단 건물로 사무실과 교과서정보관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빌딩 4, 5층(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인접)

※ 이사회 개최

- …2008년 제2차 이사회 개최
 - 일시: 2008. 12. 23.
- …2009년 제1차 이사회 개최
 - 일시: 2009. 2. 23.

※ 2009년도 연구 사업 추진

- …우리 연구재단은 2009년도 정책 연구 과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과용 도서 발행사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정책 연구 과제는 수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재단 조사연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7회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 …우리 연구재단은 각급 학교 재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과서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제고를 위하여 제7회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행사를 실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trf.re.kr>)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임원 동정

- …제8대 박현수 이사장 2008. 12. 31자 임기 만료로 퇴임
- …제9대 이사장에 전찬구 서울산업대학교 사무국장(2009. 1. 1자)이 취임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 과 서 별 구 입 처

교과서			발행사	전화 번호
국정 교과서	초등학교	○ 국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특수학교	미래엔컬처그룹	(02)3475-3800
		○ 영어(CD, TAPE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수학, 사회, 실과(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 운 생활, 생활의 길잡이, 즐거운 생활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생활의 길잡이 3~6학년 포함)	지학사	(02)330-5302
		○ 과학(실험 관찰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예 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학사	(02)7075-120
	중학교	○ 국어 1, 2, 3학년(생활 국어 포함), 국사, 특 별 활동 지도 자료	두산동아	(02)3670-5109 (02)3475-3800
		○ 생활 외국어	천재교육	(02)3282-2851
		○ 도덕	지학사	(02)330-5302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공업계, 수산계, 상업계 가사 실업계(이산 수학, 해양 과학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농업계 일부	지학사	(02)330-5302
		○ 과학계, 외국어계(아랍 어1, 확률과 통계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과학계, 외국어계(아랍 어2, 생활과 과학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체육계, 농업계, 상업계 일부	교학사	(02)7075-120
검정 교과서		위 교과서 이외의 모든 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	(02)2657-3540~4

| 서 울 지 역 직 매 장

- (주)미래엔컬처그룹 직매장-모든 국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컬처그룹 빌딩 1층(☎ 02-3475-4097)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주)두산 직매장-모든 국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 02-3670-5106)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모든 국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 02-323-4682~3)
 -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마포구청 방향 30m 지점(인디안모드 2층)

「교과서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 여 분 야 _ 〈현장 교육〉, 〈논단〉, 〈단상〉, 〈나의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 활동,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 | | |
|---------|---------------------------------|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기준(A4, 10포인트 3.5매) |
| · 원고 제출 | 수시 접수 |
| ·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 보내실 곳 | E-mail 접수(editor@ktrf.re.kr) |
| · 기타 문의 | 전화 (02) 2651-1950 연구지 담당자 앞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주소(D) http://www.ktrf.re.kr/ 이동

HOME CONTACT US SITEMAP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재단소개 교과서연구 교과서정보관 출판교실 알림마당 참여마당

0 2 . 2 6 5 1 . 1 9 5 0

교과서정보관 이용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전철_전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 버스_3412, 462, 4312, 642, 9408번

| 운영 개요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9,076	6,587	35,663
일반 자료	2,839	-	2,839
계	31,915	6,587	38,502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란,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교과서 보유

| 열람 시간

구 분	시 간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휴관
공휴일	휴관